

코스타리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7
2. 주요 산업 동향 /13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1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2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5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8
 - 대한수입규제동향 /31
 - 관세제도 /31
 - 주요인증제도 /32
 - 지적재산권 /33
 - 통관운송 /3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8
- 외국기업 투자동향 /40
- 우리기업 투자동향 /4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3
- 진출형태별 절차 /44
- 투자입지여건 /46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9
- 조세제도 /5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3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53
2. 물가정보 /54
3. 바이어발굴 /56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58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1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2
7. 이주정착 가이드 /62
8. 출장가이드 /66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코스타리카 (La Republica de Costa Rica)
위치	중미, 파나마 위에 위치
면적	51,100 km ² (한반도의 약 1/4)
기후	코스타리카는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어 연교차는 크지 않으나 고도에 따라 기후가 열대와 온대로 나뉘어져 있음. 수도 산호세는 해발 1,172m에 위치, 연중 21~29°C의 온화한 기후를 보임. 아울러 12월~4월은 건기, 5월~11월 우기로 나뉘어져 강우량이 월별로 5~300 mm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도량형	미터제
수도	산호세 (San Jose)
인구	4,401천명 (2006년 7월 1일 기준, 코스타리카 통계청)
주요도시	San José (수도, 318천명), Alajuela (229천명), Cartago (136천명), Puntarenas (105천명), Heredia (107천명), Limón (92천명)
민족(인종)	백인(혼혈 포함) 94%, 흑인 3%, 인디언 1%, 중국계 1%, 기타 1%
언어	스페인어(공식어)
종교	카톨릭 76.3%, 개신교 13.7%, 여호와의 증인 1.3%
건국(독립)일	1821. 9. 15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Oscar Arias (오스카르 아리아스- 2006.5.1일 취임)
입법부	단원제 (임기4년, 57석)
정당	여당 - 국민해방당(PLN), 야당 - 기독교사회통합당(PUSC)등 정부성향 : 대미우호, 평화선린

나. 경제지표 (2006년 기준)

GDP	US\$ 214억(2006년)
실질경제성장률	7.9%
1인당 GDP	US\$ 12,500
실업률	6.6%
물가상승률	12.1%
화폐단위	콜론 (colon) 약자 CRC
환율	미화 1불당 511.3(2006), 477.79(2005), 437.91(2004)
외채	US\$ 64.2억(2006년 6월말 기준)
외환보유고	US\$ 25억
교역규모	US\$ 188억 (수출 : US\$79억, 수입 : US\$109억)
교역품목	- 수출: 반도체, 의약품; 커피, 바나나 등 전통상품 - 수입: 원유 및 정제유, 전자부품, 의약품, 자동차 등 공산품 - 주요수출국: 미국, 중미, 네델란드, 독일, 벨기에, 영국 - 주요수입국: 미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일본

다. 한-코스타리카 관계

체결협정	문화협정('71), 무역협정('75), 과학기술협력협정('81), 사증면제협정('81), 투자보장협정('02)
교역규모(2006년)	US\$295백만 (한국수출 US\$237백만, 한국수입 US\$58백만)
주요 교역품	- 우리나라수출: 자동차, 자동차부품, 인쇄회로기판, 가전제품, 철강판, 직물, 축전지, 건축자재 등 - 우리나라수입: 반도체(CPU), 알루미늄, 커피 등
투자교류 (2006년 12월)	17건 2천600만불(우리나라 진출), 전무(국내 유치)
교민(2006년)	교민 360여명(영주권자), 체류자 140여명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코스타리카는 100 여 년의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남미 지역 내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민주헌정이 정착되어 있고 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등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민주정치는 코스타리카 사회의 중추를 이루어 온 중소자영 농민들 사이에 배양된 자주, 자립, 자유정신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1954년 내란 지도자였던 호세 피게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국민해방단(PLN, 구 자유당)과 기독교사회통합당(구 보수당)사이에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어져 안정된 정치풍토가 정착되었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수는 대통령 이며, 국회는 단원제, 정당으로는 기독교사회통합당(PUSC), 국민해방단(PLN), 시민 행동당(PAC)등이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정착돼 안정적이고 빈부 격차도 적다.

코스타리카 헌법은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인 권력의 집중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연임금지(중임허용), 국회의원 연임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 및 경찰권 부여를 통한 공명선거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군대의 민주헌정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1949 년 군대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경찰이 치안,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4.9 월 PUSC 출신 전직대통령 2 명이 국책사업 관련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화된 상태이다.

1) 행정부

2003.4 월 대통령 중임금지가 폐지되었으며, Arias 대통령은 동 중임금지 폐지 이후 처음으로 당선된 전직 대통령이다.

2006.2 월 실시된 대선 및 총선에서 Arias 후보(41%득표)는 당초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PAC 당의 Solis 후보(40%)에 간신히 승리한 바, 이에 따라 향후 재정적자 해결, CAFTA 비준 등 국가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원만한 국정운영이 과제로 남아 있다.

Arias 대통령 당선자는 1986-90 년 대통령 재직시 중미평화정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1987 년)한 바 있고, 집권 당시 안정된 국정운영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았으나,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을 반대하는 Solis 후보에 대한 집중투표로 어렵게 당선되었다. (Arias 는 적극비준 추진 입장)

코스타리카는 100 여년의 민주주의 전통과 국민들의 민주의식 등을 고려할 때, 현 민주정치제도와 정치적 안정이 계속 유지,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조직은 7개주 81개시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행정의 주체는 시의 행정기구이며, 시장은 시의회에서 선출한다.

2) 입법부

2002.2 월 총선에서 기존의 정당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변화 욕구가 표출되어 국민 해방당(PLN)과 기독교사회통합당(PUSC)의 전통적 양당체제가 붕괴되고 시민운동당(PAC)이 제 3 세력으로 원내에 진출하였다.

2005 년 총선에서는 Arias 대통령의 PLN 당이 제 1 당이 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과반수(29 석) 확보에는 실패하였다.(총 57 석중 PLN 25 석, PAC 17 석, 현 집권당인 PUSC 5 석 등)

- 정기회기.....년 2 회(5.1~7.31 및 9.1~11.30)
- 임시회기.....재적의원 2/3 이상 출석으로 년중 월~목 개최

3) 사법부

22명의 대법관(8년 임기, 의회가 선출, 1회 연임가능)이 재직하고 있는 최고 재판소와 하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법원은 고등·지방법원과 기타 형사법원, 민사법원, 특별 법원 등으로 나뉘며, 하급법관은 최고 재판소에서 임명한다.

검찰청이 사법부 내에 속해 있으며, 각종 선거와 관련,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있는 최고 선거 관리위원회의 3명의 판사(임기 6년) 임명권이 최고재판소에 있다.

- 대법원장: Luis Paulino Mora Mora(03.7.13~)

나. 현 행정부의 주요정책

1) 경제정책

- 연평균 6% 성장 및 한자리수 인플레이션 달성
 -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안 추진, CAFTA 비준 추진, 전기통신공사(ICE) 강화법 통과
- 연간 6 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라틴아메리카 제일의 외국인 투자유치국 추진
 - 특히 관광산업 분야에서 8 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2) 인프라 구축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도로보수 및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
- 산타마리아 공항 증축 조속 추진

3) 교육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예산을 기존 GDP 6%에서 8%로 확대
- 외국어 교육 강화

4) 이민법

- 외국인 서류심사 간소화 및 3D 업종 종사자가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이민법 간소화

5) 기타

- 빈곤 타파, 빈곤기금 설립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
- 재생 에너지 장려, 대중교통수단에 전기에너지 이용, 수질 개선 등 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 등

다. 외교 정책

전통적으로 대미우호, 평화선린, 유엔, 미주기구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존중우선 및 평화애호국의 징표로서 UN평화대학 및 미주 인권위원회가 소재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에 국제인권재판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ALCA)을 지지하며, 지역통상블록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명료하고 공정한 국제규범 적용을 지지하고 있고, 자연생활 환경보호 및 개선의 꾸준한 국제적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군비 예산을 절감하여 동 절감액으로 중미 특별기금 창설을 제안하는 한편, 선진국은 중미개발을 위해 군비 절감액만큼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인접국과의 관계

1) 미주지역

코스타리카는 미주 역내의 자유무역권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중미경제통합을 비롯, CARICOM 제국 등과도 자유무역권 창설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98. 3 의장국으로서 제 4 회 FTAA 무역 각료급 회의가 수도 산호세에서 개최된 바 있다.

2) 미국

1851년 수교. 동서 냉전기, 미국은 중미 5개국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코스타리카를 동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지정,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현재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2004.1월 미-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상(CAFTA)이 진행되었으나, 코스타리카는 중미 5개국 중 가장 늦게 협상이 비준되었다. 97년 항공자유화협정, 98년 코-미 마약공동협력협정(유효기간 10년)을 체결 하였다.

3) 대 니카라과와의 관계

코스타리카 정부는 98. 10 월말 태풍 "미치" 피해에 대한 국제적지원 여론과 자국민의 기피 업종에 대한 저렴한 노동력 확보 필요에 따라 98. 11. 9 이전부터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30 만여 명(이들 중 대부분이 니카라과인)의 중미인에 대해 99. 2. 1 일자로 사면 조치를 취하였다.

(San Juan 강 국경 분쟁)

1858. 4. 체결된 조약에 의하면 San Juan 강에 대해 니카라과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 코스타리카는 통상목적으로만 자유항해가 인정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국경지대 초소에 대한 물자 공급 및 국경지대 순찰을 위해 동강을 관례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그간 니카라과측도 이를 묵인해 왔으나, 98. 7 월 코스타리카가 이 강을 이용한 니카라과인에 대한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게 되자 니카라과 측은 이에 반발, 동강을 향해할 시는 코스타리카 경찰이 무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무장 필요 시에는 사전 니카라과 군부의 허가를 받을 것과 군 간부의 승선을 요구하였다.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회담 등을 개최한 데 이어 코스타리카의 요청에 따라 미주기구(OAS)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4) 대쿠바 관계

코스타리카는 쿠바의 정치구조가 변화될 때까지는 외교관계 수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98. 11 쿠바와 영사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아바나에 설치되어 있는 이익 대표부를 99. 2 월 영사관으로 승격, 업무를 개시하였다.

상기 영사관계 수립 목적은, 코스타리카는 관광 및 통상진흥, 쿠바는 코스타리카 거주 12,000 여명의 쿠바인 보호 필요에 따른 것이다.

□ 대 아시아 관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아·태 지역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APEC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1.3 월 개최된 제 1 차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포럼 (EALAF) 외무장관회의에서 이 포럼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미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대만의 우방국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지난 2007 년 6 월에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시작하면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 바 있으며, 이후 중국은 중미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코스타리카에 대해 외채매입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단교를 선언하였다.

□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1) 국제기구

1974 년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데 이어, 1997 년에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97-98 년 회기)에 선출되었다.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소국임에도 적극적인 발언을 행하였다. 97. 1. 13-15 수도 산호세에서 G-77 남남협력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1 년간 의장국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2007 년 10.17 일, 2008 년 1 월부터 1 년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정되었다(3 회째)

2) 미주기구(OAS)

제 31 차 미주기구 정기총회를 산호세에서 2001.6.3-5 간 개최하였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과의 관계 개관

1962년 8월, 양국간 수교체결 이후, 74년에 한국공관을 설치했다. Rodríguez 전 대통령이 방한,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코스 타리카 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66년 문화협정, 74년 무역협정, 79년 과학 기술 협정, 81년 사증면제협정, 85년 체육교류협정·농수산협력협정·항공협정 등을 체결 하였다. 북한과는 74년 수교가 이루어졌으나 아웅산폭발사건 후 제3국으로는 최초로 북한 과 단교 하였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164백만 달러이고 한국의 수입액은 35백만 달러이다. 주로 자동차·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커피·목재· 의약품을 수입한다. 교민 수는 350명, 체류자는 100여명(2005년)으로, 대부분의 교민은 의류업, 중고자동차, 부속판매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생물자원 공동연구센터 구축

1) 추진배경

코스타리카는 12,000 여종의 다양한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식물종의 5% 이상을 보유, 단위면적당 생물자원 밀도에서 세계 2위국에 올라있다. 2005년 9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방문시 생물자원에 대한 공동연구가 협력과제로 부상하여 공동선언문에 채택되었다.

코스타리카는 풍부한 생명다양성(Bio-Diversity)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의 전통 의약기술, 현대적 생명공학(BT)과 결합시킬 경우, 천연 신약소재 개발 등 양국 국익에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2) 주요 합의내용

2006-2007년 기간 중 한국정부는 100만 불을 투입하여 코스타리카에 “생물자원 공동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기자재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센터 건립 후 한국 정부 (과기부)는 10년간 500만 불을 투자 연구인력 파견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동 공동연구 실무기관으로 코스타리카 측은 생명다양성연구소(InBio)가, 그리고 한국측은 생명공학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다.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2006년 기준 한국-코스타리카 교역규모는 295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이중 우리나라의 수출이 237백만 불로 전체 교역규모의 80.3%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58백만 불에 그쳤다. 이에 따른 양국간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179백만 불의 일방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불균형은 양국의 교역상품 구조, 경제발전 단계 차이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한국수출은 자동차, 가전, 타이어,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철판 등 산업재, 소비재로 다변화되어 있는 반면, 코스타리카 수출품목은 Intel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기호식품(커피)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간 접촉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는 코스타리카 정부에서 제시하는 단골 이슈가 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한국의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발전약사

1) 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80년대 초반 외채위기를 경험한 코스타리카는 몽헤(Luis Alberto Monge, 82~86) 행정부 및 산체스(Oscar Arias Sanchez, 86~90) 행정부의 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고 경제를 안정성장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그 이전까지 코스타리카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이 시기

경제개발 이론이 수출지향 공업화로 전환되었고, 화훼류, 과일, 해산물, 공산품 등 비전통 상품의 수출에 대해 세금환급제도를 실시하여, 이들 상품을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고, 아울러 중앙은행에서도 환율정책 조정을 통해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율여건을 조성하였다. 자국산업 보호용으로 높게 책정된 수입관세율도 낮아져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독려했고 일부 공기업 민영화 등 개방정책이 수반되었다.

2) 외채위기의 순조로운 극복

80년대 외채위기로 디폴트를 선언한 코스타리카는 90년대 브래디플랜 (Brady Plan)으로 채무조정에 성공하였고, '91년 채권자 그룹인 파리클럽과의 협상에서 채무감축 및 상환기간 조정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코스타리카의 국제 금융기구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이후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코스타리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규모는 80년대 연평균 70백만 불에서 90년대 352백만 불로 크게 증가 하였다.

나. 최근 경제동향(2006년 상반기)

- 미국시장 수요감소로 수출은 부진했으나, 건설/유통의 내수시장 호조
- 10월 CAFTA 비준을 앞두고 경제불확실성 확대
- 경상수지 적자 지속(5년째)이나 외국인투자 확대로 외환보유는 증대
- 재정수지의 경우, 재정수입이 증가, 20년 중 최고의 흑자폭 기록
- 저리대출자금과 외국인투자자금이 몰리는 건설시장이 경제성장 견인

1) GDP 동향

- 2007년 1~5월 중 코스타리카 경제는 전년동기비 6.6% 성장률을 기록함
 - 이는 전년동기 9.4% 성장률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임.
 -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자유무역지대의 수출감소와 농수산물 수출감소에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서비스업 호조가 제조업 부진 상쇄
 - 그러나, 건설업과 상업의 경우, 건설업은 지난해 대비 19.8% 증가, 상업은 5.1%가 증가하여, 지난해 각각 14%, 3.4%의 증가폭에 비해 크게 늘어나,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건설업의 경우, 공공분야 건설은 줄어든 대신, 은행대출금리 하락으로 민간분야 건설이 30%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역시 건설시장에 집중되고 있음.
 - 유통업의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자재 등 주로 내구성 소비재 분야의 판매가 신장되었음.
 - 금융, 보험분야는 신용카드 사용증가, 민간대출 증가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성장하였으며, 통신서비스업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로 시장이 크게 확대 되었음.
 - 통신부문은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전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 수출상품인 농수산 부문은 8.1% 신장
 - 파인애플과 바나나의 수출은 생산감소로 정체상태임.
 - 그러나, 커피, 사탕수수(바이오디젤), 유제품 등의 생산은 증가하였음.

- 일반 제조업은 성장을 둔화
 - 제조업의 경우, 석유관련 제품의 공급불안정으로 전체적인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플라스틱제품, 맥주, 포장용기, 식물성기름, 의약품 등은 중미시장 및 국내시장의 수요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미국시장의 수요감소와 CAFTA 비준의 불확실성으로, 섬유, 금속, 전자부품 등의 품목은 수출 및 생산이 감소하였음.

2) 물가동향

- 2007년 상반기 코스타리카의 물가상승률은 5.6%를 기록, 이는 2006년 같은 기간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임.

기간	2005	2006	2007(1-7)	2006.8-2007.7
인플레이션	14.1%	9.4%	5.6%	8.8%

-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
 - 식음료품, 주택임차료, 공과금 등이 상승하였음. 야채, 빵, 생선류의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공과금은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음.

3) 환율동향

- Mini Devaluation 정책 지속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는 밴드 방식의 변동 환율제도인 Mini Devalu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해외 인플레이션과 자국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매일 조금씩 평가절하에 반영하는 것임.
- 2007년 7월말 현재 환율은 미화 1불당 518.66콜론으로, 2006년 12월 환율인 517.12콜론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콜론화의 실제 가치는 소폭 절상된 것으로 분석됨.

4) 대외교역동향

- 수출증가율이 더 높으나,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였음.
 - 수출은 2007년 1~6월 기간 중 46.9억불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품목은 제조업과 농업분야 제품임.
 - 제조업에서는 식품산업이 1.3억불로 36%나 증가하였고, 야자유, 면류, 과일주스 및 농축액의 수출이 늘었으며, 이 외 의약품, 전자부품의 수출도 증가하였음.
 - 주요수출국가는 미국(18.8억불), 중국(6.8억불), EU(7.2억불) 순임.
 - 한편, 수입의 경우, 60.1억불로 전년보다 8.3%가 증가했으나, 가공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제외하면 18.2%가 늘어난 것으로, 소비재, 특히, 식품, 의약품, 자동차 제품의 수입이 각각 27%, 47%, 81%가 증가해, 현지의 소비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무역수지 적자지속과 외국인투자의 증가
 - 무역수지의 경우, 2003년부터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 선진국의 유동성이 코스타리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전체적인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
 - 2005년 상반기 커피 등 전통상품 수출 및 관광산업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 상반기 1.3%에서 올해 상반기 1.9%로 확대되었음.

연도별 주요 대외수지 지표 현황

(단위: 백만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출	6,163.0	6,369.7	7,099.6	8,067.5	4,635.4
수 입	7,252.3	7,791.0	9,242.0	10,810.8	5,644.7
무역수지	-1,089.3	-1,421.3	-2,142.4	-2,743.3	-1,009.3
외국인투자	575.1	793.8	861.0	1,469.1	1,021.8
관광수지	939.9	1,052.9	1,201.3	1,246.3	761.1
투자소득수지	-754.5	-425.0	-222.4	-77.8	-463.9

자료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다. 2008년 경제전망

- CAFTA 가입 국민투표 통과로, 대미수출제품의 수출과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코스타리카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는 2006년과 유사한 안정적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지역별로 미국은 성장을 하락, 중남미는 4%대의 성장을 유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 미국과의 FTA가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됨으로써, 기존 무관세 수혜품목인 의류 외에 식품류(커피, 토르티야, 녹차, 과자류)와 화훼류가 가장 큰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제품 생산업체들은 현지에 대한 투자계획실행을 서두르고 있어, 고용, 생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유럽과의 교역확대
 - 2007년 6월, 대만과의 단교 및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와 중국은 2008년말까지 FTA협상을 타결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코스타리카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유럽의 경우, 중미5개국-EU간 FTA를 추진 중인데, 유로화 강세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중미제품의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유럽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은행의 2007년 경제전망(2007년 3분기 경제전망자료)
 - 인플레이션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환율의 경우, 향후 1년간 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이자율은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조금 상승한 7.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
 - GDP는 2007년, 2008년 모두 5.7%로 전망,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편임
 - 재정적자 규모는 최근의 흑자폭을 감안, 2007년은 GDP대비 1.7% 적자, 2008년은 1.9%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대부분의 분석기관은 부동산투자를 최근 외국인투자유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음.

- 정부의 경제정책
 - 2006년 5월에 출범한 아리아스 정권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시장개방, 자유무역, 투자유치 확대, 세수인상 및 교육 및 인프라에 투자확대 등 기업지향적 경제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 대통령선거 당시, 미국과의 FTA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반대파의 공세에 밀려 힘겹게 당선되었고, 2007년 10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간발의 차이로 FTA가 통과되면서, 향후 무역자유화, 통신 및 보험시장개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할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
 - 한편, 정부재정 확충을 위해 상정한 부가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조세부담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경제현안

1) 공기업 처리 및 재정적자가 경제현안

지난 60년대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은 비교적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결과물로 남아있는 방대한 공기업들은 고비용 비효율로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10년간 코스타리카 경제정책의 가장 큰 실패사례로 재정불균형 심화가 지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만하게 운영된 공기업들의 지출확대를 막지 못한 것에 큰 원인이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대외채무에 대해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 적자를 축소시키는 근본적 해결노력 보다는 적자 보존분을 대외채무에서 대내채무로 전환하는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내 채무는 지난 '90년 GDP의 17% 수준에서 2003년 36%까지 상승하였다. 2005년 외채 절감 노력에 따라 채무수준을 GDP의 30% 수준까지 감소시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년 정부예산의 상당부분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고, 채무원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금융시장에서의 정부차입 증가는 시장 이자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정부가 기업투자과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2) 대내채무 축소노력

코스타리카의 가장 큰 경제문제가 재정적자라는 데에는 정치세력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긴급재정세 징수 및 국채발행 등 단기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2006년 7월 조세 간소화 및 효율화 규정이 통과되었지만,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 부가세법이 미-중미 FTA(CAFTA)의 국민투표 등을 이유로 계류 중인 상태이다.

3) 관리변동환율제도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자국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매일 몇센트씩 변동시켜나가는 Mini Devalu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사전에 해외 인플레이율과 자국 인플레이율 차이만큼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금씩 평가절하에 반영하는 것이다.

Mini Devaluation 제도는 실질환율 반영기능에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환율에 대한 투기심리 해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소비재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예측된 평가절하율 만큼 인플레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발생, 정부의 인플레이 억제노력에는 역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4) Intel 반도체공장의 유치

피게레스(José María Figueres, 94~98) 행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5억불 규모의 Intel 마이크로프로세서 조립공장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Intel 공장의 코스타리카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제조업 육성, 외투기업 유치 등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인텔의 투자는 15 개 내외의 관련 첨단기술 업체의 동반투자를 유발시키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컸지만 코스타리카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가 인텔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즉 국가경제 전반이 침체를 겪더라도 인텔공장이 생산과 수출을 늘리면 GDP 성장률, 수출,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경제지표가 실물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 정부에서는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 첨단기술산업(Intel)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로 구분 발표하고 있다.

마. 주요 경제지표

지표명	단위	2003	2004	2005	2006
GDP	U\$백만	17514.4	18593.0	19969.2	22,231.4
GDP 성장률	%	6.4	4.3	5.9	8.2
1인당 GDP	U\$	4,119	4,200	4,368	4,580
인구	백만명	4.1	4.2	4.3	4.4
실업률	%	6.7	6.5	6.6	6.0
인플레이(CPI)	%	9.87	13.13	14.07	9.43
수출(FOB기준)	U\$백만	6,102.2	6,301.5	7,026.4	8,199.8
수입(FOB기준)	U\$백만	7,663.2	8,268.0	9,823.6	11,546.7
무역수지	U\$백만	-1,561.0	-1,966.6	-2,797.3	-3,346.9
외채	U\$백만	3,753.0	3,883.7	6,545.5	6,994.7
외환보유고	U\$백만	2,094.1	2,501.1	3461.2	4,284.7
평균환율	Colon	398.66	437.93	477.88	511.25

자료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2. 주요 산업 동향

가. 주요 산업 동향

코스타리카는 비옥한 화산 토양 및 온화한 기후로 인해 전통적으로 농림 수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근대에 이르러 제조업 및 관광 산업 등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제조업 분야는 아직도 취약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섬유 보세가공수출 산업분야 외자 유치에 노력해 왔으나 인건비 상승 및 노동법의 강화를 이유로 외국기업들이 인근 국가로 이전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8년에 인텔사의 중남미 생산기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코스타리카 제조업 분야의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으나, 2006년 기준 제조업은 전체 GDP의 약 21.8%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2004-2006년 기간 동안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향후 농림수산업, 제조업과 함께 코스타리카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 비교 산업 동향

(단위: US\$백만)

산업분야/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총계	16,844.2	17,514.4	18,593.0	19,969.2	22,231.4
부가세/수입세	1,616.6	1,629.4	1,759.7	1,930.3	2,290.3
산업GDP	15,227.6	15,885.0	16,833.3	18,038.8	19,941.1
농림수산업	1,299.8	1,389.7	1,451.8	1,561.4	1,759.9
광업	24.6	24.0	26.0	30.3	43.6
제조업	3,277.1	3,361.3	3,662.2	3,939.0	4,344.3
건설업	712.6	733.7	796.3	815.3	997.1
전기수도	415.9	427.8	488.0	499.3	477.0
상업요식호텔	2,918.4	3,036.6	3,267.2	3,575.9	3,916.5
수송보관통신	1,384.2	1,512.8	1,623.0	1,749.5	1,923.7
금융보험	858.2	939.6	979.8	1,105.2	1,257.2
부동산	682.0	675.4	672.3	685.7	720.6
기타	3,654.8	3,784.0	3,866.5	4,077.2	4,501.2

정보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나. 농림 수산업

적도 쪽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해발 600-1200m 사이의 중양고원 지대에서는 주로 커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해안 및 북부지방에서는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멜론 등 열대과일들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바나나의 경우, 2005년 기준 세계 최대 바나나 생산국인 에콰도르에 이어 두 번째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품이 Delmont, Chiquita, Standard Fruit Company 등을 통해 미국 및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미국 과일유통업체에 종속되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에콰도르 및 기타 남미국가들과는 달리, 전체 공급자 50% 이상이 독립된 중소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니카라과 국경주변의 북쪽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오렌지도, 2005년 기준 코스타리카가 브라질에 이어 미국의 2번째 오렌지 공급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멜론은 대부분의 생산량을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유통 가치상승에 따라 각광 받는 수출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파인애플의 생산 및 수출량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향후 제 2의 수출작물인 커피 수출액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고급 품질의 아라비아 커피의 생산은 바나나에 이어 2번째로 중요한 코스타리카의 주요 수출 농산물로서 중앙고원지대에서 중소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커피의 대명사로 볼리우는 콜롬비아 및 브라질 커피보다 자국산 커피가 더욱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 국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 커피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커피가격의 등락에 따라 커피에 의한 수익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커피 출고가에 직접 타격을 입는 중소농가의 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커피회사들이 연합하여 Icafé (Instituto Costarricense del Café: 코스타리카 커피 조합)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숲의 보존으로 인한 청명한 공기의 공급”을 모토로 자연보호에 힘쓰고 있어, 코스타리카 임업은 2006년 현재까지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중반 바나나 농장 확대를 위한 개간 사업으로 간헐적인 벌목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는 원천적인 벌목 금지가 행해지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주요 수산물은 참치, 상어, 새우, 정어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토가 카리브해 및 태평양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수산물의 수확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양식업으로는 Tilapia 라는 이름의 민물고기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1999년 6.6톤 생산에서 2002년 기준 13.2톤 생산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생산된 량의 90%는 미국으로, 3%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

다. 관광업

코스타리카 국토는 태평양 및 카리브 해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해변이 발달하였고, 전국 도처에 각기 다른 규모의 활화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고원의 쾌적한 날씨 및 정부 주도로 인한 자연보호에 힘입어 국토의 약 2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1990년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코스타리카 관광업은 매년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여, 2006년도 관광수입액(U\$16.2억불)이 전체 수출액(80.6억불)의 약 20%에 달할 정도로 코스타리카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바나나 수출액의 3배, 커피 수출액의 8배로 이미 관광산업이 명실공히 코스타리카의 주력사업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미국 무역센터 테러사건으로 일시적인 관광객 감소가 있었으나,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3년 11.3%, 2004년 16%, 2005년 1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3년 이후 미국 및 유럽의 관광객이 각 21%, 21.6%로 크게 늘어났으며,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고 있는 국가별 관광객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전체의 41%, 중미 25%, 유럽 1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스타리카 관광객 증가율

(단위: 1,000 명)

년도	2003	2004	2005	2006
관광객 수	1,238.7	1,452.9	1,679.1	1,716.3
증가율	11.3%	16%	16.3%	2.2%

정보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관광진흥청

이러한 관광산업의 성장은 최소 약 8만5천 명의 직접고용과 약50만 명의 간접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호텔사업 및 요식업, 나아가 호텔 및 리조트 건설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한편, 성수기(11~4월)에 객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계 유수의 호텔체인들이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관광산업의 호재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민자로 코스타리카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이들 은퇴이민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여, 코스타리카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 제조업

1960-70년대 코스타리카 정부 주도로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을 펼쳐 국내 제조업을 육성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980년대 초 외환위기로 인해 위축되었다가, 1990년대 초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으로 변경 시행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외국자본 유치 및 1988년 Intel 사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조립공장 투자 유치를 성공 시켰다. 초기 약 5억불 규모로 시작된 인텔 반도체 공장은 첨단 기술업체의 동반 투자 유발 및 제조업 육성, 외자투자 기업 유치등 여러 측면에서 코스타리카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인텔 반도체 공장 외에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다국적 기업인 Abbott 및 Boxter, Pfizer 등 다수의 제약 공장 및 섬유, 의료기기 제조 업체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여 전문인력을 이용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으로는 유가공 제조업체인 Dos Pinos, 코카콜라 코스타리카, Scott 코스타리카, 타이어 제조업체인 Llantas de Centroamerica, 냉장고등 전자제품 제조회사 Atlas 등 손에 꼽을 정도로 한정적이다.

1) 농산업분야

농산업분야는 코스타리카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의 4.8%를 차지하고, 고용인구는 5만 명에 이른다. 코스타리카중앙은행에 따르면, 하위 산업분야 중 가장 활발한 분야는 유제품 생산, 과일채소류의 포장 및 보존, 식용유 및 식물성, 동물성 유지 생산, 제분산업 등이다.

2005년 농산업분야 주요 지표	
지표	실적
2004년 해당분야의 GDP(백만불)	958.52
전체 GDP에서의 비중	4.8%
고용인원	49,383
수출(백만불)	1,070
수입(백만불)	319.9
업체수	1140
수출업체수	201

정식으로 등록된 식음료 제조업체는 모두 1,140개사로, 이중 직원 4명 이하의 미니기업이 44%, 29명 이하의 소기업이 35%로 다수를 차지하고, 99명 이하의 중기업은 15%, 100명 이상의 대기업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HS Code 분류는 15~24류에 해당하며, 이런 품목군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대비 2005년의 수출량은 46%가 증가하였다.

2005년 총 수출금액은 10.7억불로, 이 중 주요품목으로는 기타식품, 과일 주스 및 농축액, 야자유, 소스, 정밀제분제품 등이다. 전체 등록기업 중 201개사가 수출하고 있고, 수출 품목은 290가지로, 주로 미국, 과테말라, 멕시코 등에 수출되고 있다. 이들 시장 외에도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전세계 8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농산업 분야의 수입액은 3.2억불로, 음료수 제조용 시럽 및 농축액, 카카오가 들지않은 사탕류, 담배 등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

2) 플라스틱산업

플라스틱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수는 160개로, 이들 기업이 처리하는 플라스틱 레진은 연간 16만 톤에 이르며, 65%는 포장용 제품을 생산하고, 나머지 35%는 건축용 PVC 파이프 등의 제품을 생산한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이며, 전체 고용인구는 1만2천 명이다.

2005년 플라스틱산업분야 주요 지표	
지표	실적
2004년 해당분야의 GDP(백만불)	231.64
전체 GDP에서의 비중	1.16%
고용인원	12,000
수출(백만불)	171.9
수입(백만불)	563.0
업체수	160
수출업체수	N/A

플라스틱산업협회(ACIPLAST)에 따르면, 연간 제품 생산량은 19만5천 톤으로, 포장재, 건설자재(파이프 등), 농업용 제품, 금속산업용 부품 등의 수요가 많다.

전체 160개 업체 중 84개사가 소기업, 54개사가 중기업이며, 22개사가 종업원 100명 이상의 대기업이다. 업체의 85%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면, 33%가 인젝션몰딩, 20.8%가 필름사출, 16.8%는 블로우인젝션, 15.6%는 재활용산업, 5%는 열성형 및 라미네이팅, 5% 블로우사출, 3%는 액세서리, 파이프, 몰딩 등에 종사하고 있다.

HS Code는 39류로, 이 제품의 무역수지는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훨씬 많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수출은 2001년~2005년 기간 중 19.4%가 증가했다. 수출품목의 43.6%가 플라스틱 용기에 해당하며, 파이프, 액세서리 제품이 16.9%, 플라스틱 판제품은 15.9%를 차지했다. 2005년 수출통계를 보면, 모두 186개 제품이 61개 국가로 수출되었다. 주요수출국가는 중미지역으로, 전체 수출의 76.2%가 중미국가에 수출되었다. 단일국가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았다.

수입제품을 보면, 2005년 전체 수입량은 5.6억불로, HDPE 레진제품이 전체 수입의 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플라스틱제품 6.9%, PVC레진이 6.0%를 기록했다.

3) 인쇄산업

2003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쇄산업과 관련된 코스타리카의 업체는 모두 750개사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2006년 현재로는 약 1천개 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력이 덜 필요함에 따라, 업체의 규모는 더 작아졌다.

크게 4개의 소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전사(148개사), 평판인쇄(338개사), 플렉소인쇄(75개사), 건식복사(137개사)와 관련 공급업체(52개사) 등이다.

2005년 이 산업분야의 GDP대비 비중은 0.48%이며, 고용인구는 1만 명으로 추산된다.

HS Code는 48류와 49류로,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카튼박스 등의 제품이 중미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4) 정보통신산업

코스타리카는 인텔의 투자를 포함,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외국인투자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코스타리카가 지닌 뛰어난 인력은 국내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까지도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시장에서 세계적인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일련의 중요한 계기를 통해 성장했다. 1997년 인텔의 투자를 시작으로, 1999년에는 P&G에서 중남미 전체 생산판매를 관리하는 관리본부인 GBS라는 협업 서비스조직을 설립했다. 뒤이어, P&G에서는 일부 정보시스템의 유지기능을 HP사에 외부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HP사도 코스타리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분야의 2005년도 수출액은 18.4억불을 기록했다. 세부분야별로는 컴퓨터부품류(CPU 등)가 14억불, 콜센터, 애플리케이션 관리, 데이터백업서비스, 텔레 마케팅과 같은 운영대행서비스가 3.6억불, 소프트웨어 개발이 1.7억불, 애플리케이션 외부계약, 주문형애플리케이션, SI와 같은 직접서비스는 0.75억불이 수출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인구는 2005년말 현재 25,000명으로, 부품 쪽에 11,000명, 운영대행서비스에 6,900명, 소프트웨어 4,500명, 직접서비스 2,205명 순이다.

이중 소프트웨어 인력의 학력수준을 보면, 고졸학력 41%, 학사학위 소지자 29%, 기술자격 소지자 16%, 석사학위 소지자 13%, 박사 1% 등이며, 전체 인력의 96%가 코스타리카 국적 이다. 2005년 수출실적은 1.73억불로, 수출대상국가를 보면, 중미가 40%, 미국 22%, 멕시코 15%, 남미 8% 순으로, 중남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수출국임을 알 수 있다.

5) 섬유산업

코스타리카에서 섬유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 수출실적을 보면, CPU 등의 전자부품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량이 큰 품목이다. 또한, 고용인구도 많아, 2005년 고용 인구는 직접고용인구가 15,000명, 간접고용인구는 5,250명을 기록했다.

섬유 및 봉제산업 업체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업체와 주로 미국을 겨냥한 수출업체로 확연히 구분된다.

직물업체는 6개사로, 이 중 5개는 Jersey직물, 1개는 일반직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면직물이나 면과 합성섬유의 혼방직물을 생산하며, 대부분 국내 봉제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 수출용 의류 생산업체

2005년 이들 수출업체의 수출량은 5.3억불로, 이 중 95%가 미국시장으로 수출되었다. 이들 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종업원수 500~1,000명 사이의 대기업, 직업보건 및 노동규범 등의 국제기준 준수, 무관세 및 자유무역지대 혜택 향유, 생산과정에 최신기술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코스타리카의 섬유봉제산업은 단순조립산업에서 제품개발, 원자재 및 액세서리 공급, 재단, 마감, 유통까지 포함한 Full-package 산업으로 진화하였다. 기존의 단순조립산업에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의류제품의 수출량은 2002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중미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고, 중국제품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력의 수준이나 기술수준, 기업경영능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코스타리카에 남기로 결정하였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대안상품을 찾고 있고, 새로운 패션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코스타리카의 주요수출품목은 면바지, 속옷, 양말 등이다.

섬유산업: 코스타리카의 주요수출품목 (2005년)		
품목	수출금액(백만불)	비중
남성용 면바지	109.5	20.7
여성용 속옷	95.3	18.1
남성용 면양말	91.4	17.3
여성용 면바지	41	7.8
여성용 면양말	26.9	5.1
기타	6.7	3.9

□ 내수시장용 의류제조업체

내수시장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국내 유통업체에 봉제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모방하고, 소비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제품을 판매할 시장의 틈새에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형태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400개 정도가 있다.

6) 금속기계산업

코스타리카의 금속기계산업 종사업체는 모두 871개사로,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의 분류에 따르면, 주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기초산업, 금속구조물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이 외에 칼, 수동공구, 일반도구 생산업체가 있다. 전체 고용인구는 16,500명이다.

최근의 산업 생산동향은 매우 불규칙한 데, 이는 금속기계 산업 내의 하위 분야에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속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기초산업 등은 성장하고 있으나, 칼, 수동공구 등의 생산을 크게 줄어들었다. HS Code 분류로는 77류를 제외한 72류부터 89류까지 매우 광범위한데, 이 분야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1년 부터 2005년까지의 수출실적은 1.31억불에서 2.36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품목을 보면, 라미네이트 철강제품과 알루미늄판 제품의 비중이 제일 높다. 871개 업체 중 수출 기업은 184개사로, 65개국에 37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수출대상국은 미국(19.7%), 니카라과(15.5%), 과테말라(11.5%), 멕시코(10.7%), 엘살바도르(10.1%) 등이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인데, Procomer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6.66억불 수입으로, 적자폭은 4.54억불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구리전선, 두께 0.5mm 미만의 철강판, 두께 3mm 미만의 철강판 등이다.

□ 자원산업 동향

가. 코스타리카의 주요자원

1) 석유

코스타리카는 유전이 없어, 석유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인 코스타리카 정유공사(RECOPE)에서 수입된 원유의 정제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2) 천연가스

역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가스전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코스타리카의 지리적 여건은 향후 천연가스의 개발에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철광

현지에 철광의 생산은 없으나, 외국투자기업인 Arcelor Mittal에서 제철소를 설립, 2006년 철광 수입량은 291백만 불에, 54,240톤의 철강제품을 수출하였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지난 1978년 Alunasa라는 국영기업을 설립, 철광 채굴을 시도했으나,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밀려 성사되지 않았고, 이 회사는 1990년 베네수엘라의 CVG에 매각된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수입된 철광을 가공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

4) 석탄

현지에는 석탄산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5) 기타

현지의 주요 천연자원으로는 Limestone, Diatomite, 모래, 암석 등으로, 2006년 수출액은 150만불이며, 주로 중미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6) 바이오디젤 및 에탄올

코스타리카 정부는 RECOPE를 통해, 에탄올연료 개발프로젝트에 570만 불을 투자,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일부 대학이나 대기업에서는 자체프로젝트를 통해 야자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고시를 통해, 2008년 말부터는 가솔린에 에탄올 7%, 디젤에는 바이오디젤 5%를 섞어서 판매할 계획이다.

나. 국가경제에서 자원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자원 및 에너지산업의 비중 및 성장률

연도	성장률(%)	GDP대비 비중(%)
2000	-5%	2,3
2001	-13%	2,0
2002	30%	2,6
2003	-4%	2,5
2004	8%	2,7
2005	0%	2,7
2006	15%	2,3

자료원: 중앙은행

다. 자원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코스타리카 정부에서는 자원산업과 관련된 모든 투자나 건설은 환경기술위원회(SETENA)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기술위원회에서는 환경법, 반독점법 등의 법률을 기준으로 승인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의 자연보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국제 탄소중립국가 네트워크를 선도한다
- 주요산림보호를 위해 벌목회피에 대한 국제적 보상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한다
- 환경보호에 따른 상호부채해소를 지원한다
- 탄소배출에 따른 세금부과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

라. 코스타리카의 천연자원 보유/생산/수출 통계: 없음

마. 관련 정부기관 및 기구

- 환경에너지부: www.minae.go.cr
- 국립지리연구소: www.mopt.go.cr/ign
- 코스타리카 전력공사: www.grupoice.com
- 환경기술위원회: www.setena.go.cr
- 코스타리카 정유공사(RECOPE): www.recope.go.cr
- 코스타리카 제철소: www.arcelormittal.com
- 코스타리카 수로하수처리공사: www.aya.go.cr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코스타리카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표

구분	단계	관련국가	협정내용	체결일	발효일	주요혜택분야
중미공동시장	기체결	중미-칠레	자유무역협정	2001.1.25	2002.2.15	의약품, 식품, 직물
		중미-도미니카(공)	자유무역협정	1998.11.28	2002.3.7	기저귀, 의약품
		중미경제통합협약	지역경제통합	1960.12.13	1961.6.4	
		중미-파나마	자유무역협정	2007.8.7	비준중	의약품, 살충제
		중미지역내 투자서비스협정	자유무역협정	2007.2.22	비준중	
		미국-중미및도미니카공(DR-CAFTA)	자유무역협정	2004.1.25	2008.5(예정)	설탕, 직물, 과일
	협상중					
추진중	중미-EU	경제협력협정				
코스타리카	기체결	코스타리카-파나마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전자부품, 식품
		코스타리카-캐나다	자유무역협정	2001.4.23	2002.11.1	설탕, 커피
		코스타리카-카리브커뮤니티(CARICOM)	자유무역협정	2004.3.9	2005.11.15	
		코스타리카-멕시코	자유무역협정	1994.4.5	1995.1.1	야자유, 알루미늄쉬트
	협상중					
추진중	코스타리카-중국				커피, 가죽제품	

자료원: 대외무역부(www.comex.go.cr)

나. 중미공동시장(CACM)

이 협정은 1961년 체결(코스타리카는 1962년 가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코스타리카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협약을 맺고 있다. 현재까지 중미시장 공동관세는 95%의 통합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일단 한 국가로 수입이 되면, 역내 무역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관통합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커피, 석유, 설탕 등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자체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통합계획도 현재는 보류 중인 상태이다.

다. 미국-중미 FTA(CAFTA) 비준관련 국민투표 결과

국민투표는 2007년 10월 7일 실시되었으며, 투표 결과, 투표율 59.9%에, 찬성 51.6%, 반대 48.3%의 간발의 차이로 CAFTA 가입안이 통과되었다.

CAFTA 가입으로 인해, 수출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동안 시장을 독점했던 공기업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면서, 소비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개방과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이 일정부분 불가피하고, 쌀과 같은 일부 농업분야는 쇠퇴하게 될 것이며, 보험시장의 개방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 수 있어,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CAFTA 가입 확정으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내년 2 월까지 CAFTA 가입과 관련된 통신, 보험 등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특허법 개정 등 관련 12 개 법안의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국민투표로 인해 기능이 일시 중단됐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세제개혁안 등의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번 코스타리카의 CAFTA 가입 확정으로 CAFTA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 마무리돼 CAFTA 가 본격적인 케도에 오르게 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중미-EU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국과의 FTA도 협상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CAFTA 가입 확정으로 향후 협상타결과 비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중국산 제품의 현지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해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7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3.2억불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억불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수출은 6월까지 총 46.9억불로, 15.5% 증가하였다. 주요증가품목은 제조업과 농업분야 제품이다. 제조업에서는 식품산업이 1.3억불로 36%가 증가하였고, 야자유, 면류, 과일쥬스 및 농축액의 수출이 늘었으며, 의약품, 전자부품도 수출이 증가하였다.

주요수출국가는 미국(18.8억불), 중국(6.8억불), EU(7.2억불) 순이다.

수입은 60.1억불로 전년동기대비 8.3%가 증가, 전년보다 둔화했으나, 가공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제외하면 18.2%가 증가하였다. 소비재, 특히 식품, 의약품, 자동차의 수입이 각각 27%, 47%, 81%로 크게 늘어난 품목이다.

코스타리카의 수출입총괄

(단위: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03	6,102.2	16%	7,663.2	7%	-1,561.0
2004	6,301.5	3%	8,286.0	8%	-1,966.6
2005	7,026.4	12%	9,823.6	19%	-2,797.3
2006	8,199.8	17%	11,546.7	18%	-3,346.9
2007(1-7)	5,407.0	15.5%	7,088.9	8.3%	-1,681.9

자료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코스타리카 주요수출국 현황

(단위: 천불, %)

국가	2004		2005		2006		2007(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증감률
총계	6,301,500	100	9,823,649	100	8,199,800	100		4,688,300	100	
미국	852,500	13.5	915,800	9.3	1,077,500	13.1	1	659,200	12.2	6.7
니카라과	193,700	3.1	235,800	2.4	248,300	3.0	3	138,600	2.6	17.1
과테말라	196,500	3.1	212,600	2.2	233,600	2.9	2	127,000	2.4	9.1
파나마	135,500	2.2	153,100	1.6	195,500	2.4	4	115,100	2.1	0.6
온두라스	128,600	2.0	148,800	1.5	185,200	2.3	5	106,900	2.0	13.9
엘살바도르	143,300	2.3	153,600	1.6	178,500	2.2	6	102,900	1.9	15.8
네델란드	99,900	1.6	123,000	1.3	190,300	2.3	8	102,900	1.9	18.0
독일	147,600	2.3	140,400	1.4	143,900	1.8	9	100,200	1.9	22.6
벨기에	106,800	1.7	116,400	1.2	116,200	1.4	7	93,500	1.7	44.9
영국	65,600	1.0	58,200	0.6	98,200	1.2	10	61,900	1.1	11.0

자료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코스타리카 주요수입국 현황

(단위: 천불, %)

국가	2004		2005		2006		2007(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증감률
총계	8,286,000	100	9,823,649	100	11,546,700	100		6,014,100	100	8.7
미국	1,802,016	21.8	1,937,388	19.7	2,243,740	19.4	1	1,531,546	21.6	23.9
베네수엘라	303,422	3.7	446,702	4.6	546,851	4.7	2	393,145	5.6	21.1
멕시코	394,487	4.8	445,805	4.5	540,501	4.7	3	365,421	5.2	20.0
중국	231,341	2.8	345,130	3.5	465,901	4.0	4	318,810	4.5	41.9
브라질	339,309	4.1	388,482	4.0	369,149	3.2	5	239,606	3.4	19.0
일본	229,318	2.8	227,967	2.3	271,231	2.4	6	199,558	2.8	40.0
아루바	62,218	0.8	165,507	1.7	280,837	2.4	7	177,437	2.5	0.2
콜롬비아	259,159	3.1	241,388	2.5	223,981	2.0	8	142,634	2.0	16.0
프랑스	85,886	1.0	178,302	1.8	216,070	1.9	9	140,516	2.0	4.9
과테말라	153,995	1.9	177,833	1.8	206,133	1.8	10	131,986	1.9	11.1

자료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주요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2004	2005	2006	2007(1-6)			
				순위	금액	비중	증감률
바나나	543,300	481,100	620,200	1	356,200	7.59	13.33
파인애플	255,900	324,700	433,300	2	244,200	5.2	12.48
커피	197,600	232,700	255,800	3	186,000	3.96	13.07
전자부품	80,800	100,900	171,200	4	88,900	1.89	9.35
멜론	71,600	74,900	84,600	5	83,800	1.78	-0.95
의약품	110,000	103,200	113,800	6	60,100	1.28	4.16
종이골판지	95,600	97,600	109,200	7	59,000	1.25	7.47
식물	70,000	69,800	74,200	8	47,600	1.01	8.18
식물가지	61,600	66,100	69,500	9	39,400	0.84	6.78
설탕	38,100	29,700	42,500	10	34,400	0.73	34.38
Total	6,301,500	9,823,649	8,199,800		4,688,399	100	

자료원: 코스타리카 통계청 및 중앙은행

주요수입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2004	2005	2006	2007(1-7)			
				순위	금액	비중	증감률
유류	547,082	794,181	953,376	1	619,020	8.73	-0.21
기타산업서비스	553,860	658,437	766,798	2	468,569	6.6	35.65
의약품, 화학	382,774	478,119	596,329	3	388,184	5.47	21.60
금속산업	308,035	354,645	536,237	4	314,333	4.43	8.47
식음료, 담배	392,217	397,847	409,672	5	311,338	4.39	39.11
자동차	254,431	288,053	330,786	6	260,941	3.68	47.42
의약품	258,040	290,032	329,635	7	242,580	3.42	34.41
목재, 가구	272,112	286,135	343,236	8	239,986	3.38	30.78
식품	249,623	271,662	295,784	9	188,776	2.66	19.37
운송용차량	119,437	121,958	195,591	10	151,384	2.13	60.47
Total	8,286,000	9,823,600	11,546,700		7,088,900	100	

자료원: 코스타리카 통계청 및 중앙은행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수출입실적 총괄

2007 년도 양국간 수출입실적을 보면, 주요교역품목 중 인쇄회로기판, 합성수지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의 교역량이 증가,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철강, 기계 등의 주요수출품목이 전년동기대비 25~30% 가량 증가하였으나, 작년 최대수출품목인 인쇄회로기판의 수출부진으로 전체적으로는 5.7% 감소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인텔에 대한 인쇄회로기판 제품 수출이 정상화될 전망이고, 건설관련 제품의 수출증가도 기대되어, 연말까지 전체적인 수출시장은 2006 년 실적보다 10~15% 정도 성장한 2.7 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의 경우, 현지 인텔로부터 CPU 및 관련제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고철 등의 제품도 수입량이 늘어났지만, 이러한 원자재는 공급가능물량이 크지 않아, 향후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대주재국 수출실적

2007 년 1 월부터 7 월까지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보다 5.7% 감소한 1 억 3 천만 불을 기록하였으나, 기구부품(인쇄회로기판)과 합성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수출품목은 15~46% 수준으로 증가하여, 이 두 가지 품목을 제외한 수출의 증가율은 20.5%를 기록하였다.

주요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각각 24.4%, 31.3%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주재국의 차량제품 수입증가율이 81%(자료원: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임을 감안하면, 시장 점유율은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지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보다 많은 브랜드를 취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시장의 경우, 2007 년 10 월 7 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미국과의 FTA 가 비준될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낮아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해 최대수출품목이었던 인쇄회로기판(PCB) 제품의 경우는 현지의 인텔공장이 수입선인데, 올해 상반기 시황의 불안정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이 줄었으나, 6 월부터 회복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작년도 수출실적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 년 수출실적 중 특기할 만한 분야는 건설관련 제품으로, 현지의 건설시장 활황에 따라 철강판(46.9%), 건설기계(35.6%), 철강관(107%), 에어컨(299%) 등의 제품 수출이 늘었고, 특히 건물의 뼈대로 쓰이는 형강제품은 무려 1,566%가 늘어, 연내에는 10 대 수출품목의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시장과 관련된 전선제품 수입도 76%가 늘어났으며, 향후 수력발전소 등이 추가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수입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전, 통신의 경우, 가전은 냉장고 18.2%, 회전기기 10%, 에어컨 299% 등이 증가, 기존 시장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으나, 무선통신기기(-60.7%)의 경우는 현지 GSM 방식의 회선 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없어 수입이 축소되었으며, 회선증설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플라스틱, 고무 등의 제품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격화로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HDPE, LDPE 등의 합성수지 제품은 2006년 10월부터 수출이 크게 격감, 올해 수출은 82%나 감소하였다. 기존의 주요수출 품목이었던 직물(15.7%)과 섬유기계(12%)의 경우, 현지의 한국투자기업 철수와 CAFTA 비준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당분간 증가율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의 경우, 상위 2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1%를 차지, 수출품목 다변화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 대주재국 수입실적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로부터 수입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6.4%가 증가한 47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인텔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CPU 제품은 한국이 주재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금액대비 83.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고, 이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관관계가 있어, 양국간 교역확대의 핵심품목이다.

원자재인 알루미늄(웨이스트 및 스크랩)의 경우, 수입량이 증가(160.9%)하였으나, 한국 전체 수입량의 0.27%에 불과하며, 현지의 공급량도 크지 않아, 증가세가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불, %)

연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1975	1,136	711.4	2	2,594.9	1,134
1980	4,749	98.0	286	175.0	4,462
1985	12,438	26.3	412	-64.0	12,025
1990	47,013	5.9	6,616	93.3	40,397
1995	56,807	-8.6	2,599	-0.7	54,208
2000	109,966	2.6	74,838	50.3	35,128
2001	111,461	1.4	33,760	-54.9	77,701
2002	111,202	-0.2	39,245	16.3	71,957
2003	80,695	-27.4	66,482	69.4	14,213
2004	122,374	51.7	28,591	-57.0	93,783
2005	164,032	34.0	35,124	22.9	128,907
2006	236,780	44.4	58,070	65.3	178,710
2007(1-7)	131,150	-5.7	47,305	36.4	83,845

정보원: 무역협회.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수치임.

한국의 주요수출품목

(단위: 천불)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2006		2007(1월~0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36,779	44.4	131,150	-5.7
1	741	자동차	62,521	34.8	39,020	24.4
2	834	기구부품	66,975	62.6	27,829	-37.8
3	742	자동차부품	24,998	66.8	17,290	31.3
4	613	철강판	17,147	324	13,397	46.9
5	439	기타직물	8,727	116.4	5,122	15.7
6	725	건설광산기계	5,563	83.8	4,935	35.6
7	320	고무제품	5,459	-20.1	3,454	9.3
8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5,737	325.2	2,815	-27.4
9	310	플라스틱 제품	4,028	154.4	2,584	-15.7
10	214	합성수지	14,829	23.2	1,877	-82
11	850	전선	2,248	769.1	1,396	76.4
12	835	건전지및축전지	1,545	-17.1	1,344	34.6
14	812	무선통신기기	2,377	-37.5	785	-60.7
17	611	형강	120	320.8	594	1,566.60
18	614	철강관및철강선	766	-26.7	500	107.4
19	713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64	-71.4	483	299
23	612	선재봉강및철근	453	5.9	343	151.1

정보원: 무역협회

한국의 주요수입품목

(단위: 천불)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2006		2007(1월~0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8,069	65.3	47,305	36.4
1	831	반도체	43,756	116.2	39,614	60.7
2	621	알루미늄	1,480	139.6	1,546	160.9
3	015	기호식품	1,208	5.5	1,184	62.5
4	012	산식물	1,247	61.3	958	22.8
5	815	계측제어분석기	1,959	-8.9	635	-54.3
6	813	컴퓨터	3,624	-16.7	553	-81.9
7	733	의료용기기	280	-9.1	503	108.8
8	814	전자응용기기	99	85	481	1,085.70
9	618	합금철선철및고철	63	-	423	20,071.10
10	833	수동부품	328	-1.7	349	78.3
11	226	농약및의약품	432	20	205	-28.6
12	834	기구부품	277	642.5	175	8.3
13	812	무선통신기기	656	-80.7	152	-70.2
15	811	유선통신기기	1	-94.6	122	7,176.10
18	715	광학기기	1,093	1,185.80	29	-96.3
19	441	의류	585	79.7	26	-94.9

정보원: 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코스타리카는 1963년 중미 5개국이 협정한 중미관세코드 협정 및 중미관세분류체계 (SAC: Sistema Aranceria Centroamerica)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자유화를 기조로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법규는 없다.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1990년 초기투자 15만불 이상 등 적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대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를 목적으로 부분 개정되었다. (입지선정 참고) 수입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고 있다.

□ 음식물 수입 및 등록에 관한 법령 (Decreto No.26725-S)

코스타리카로 수입되는 모든 음식물은 고위험 품목과 저위험 품목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품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고위험 품목

- 공인된 전문연구소의 제품특성 분석증명서(일반특성, 화학 특성, 생화학특성 등)
- 국립 공인 연구소의 화학, 생화학, 성분 분석 증명서
- 코스타리카 보건국의 식품유통 허가서
- 원산지에서 판매 및 일반소비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에 사용하는 증명서

○ 저위험 품목

- 공인된 전문연구소의 제품특성 분석증명서(일반특성, 화학 특성, 생화학특성 등)
- 코스타리카 보건국의 식품유통 허가서

가. 수입규제제도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고, 소규모 판매상 까지도 직접 수입을 하고 있을 만큼 자유로워, 자의든 타의든 코스타리카 수입관리제도의 기초는 수입자유화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 수입금지: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없다.
- 수입제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 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불공정 무역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국내시장 점유율이 25% 이상 되는 제조업체 또는 관련조합은 반덤핑제소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가 직권으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원산지 규정: 수입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 수입시 수출국 통관 서류 사본 제출 필요

코스타리카는 지난 2004.3.5일 관세법(Ley General de Aduanas)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Francisco Fonseca 관세청장은 동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관 통관과정에서의 언더밸류, 관세포탈, 세관원 결탁 부정 등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향후 동 법안이 세관 부패척결 및 투명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 관세법 개정안은 밀수 및 언더밸류 등에 대한 처벌강화, 통관사 자격요건 강화, 통관사 및 세관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개정
통관사 자격	관세행정 학사 이상	석사 이상
밀수에 대한 처벌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포탈세금의 2배 벌금	6개월 이상 3년이하 징역 수입금액의 2배 벌금
세관원 서류검사 기한	기한 없음	2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세관 근무시간	인력부족시 근무단축	단축근무 금지
수출통관시 통관사 고용	의무사항	선택사항
수출국 세관서류	선택사항	의무사항

그러나 관세법 개정안 조항 중, 수출국 세관 확인서를 통관서류로 제출하라는 조항은 일부 수입상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으로서 반대여론이 비등하였다. 실제로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입물품 통관이 지체되고 이에 따라 세관 보세창고가 포화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통관업무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결국 코스타리카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하여 동 법안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동 제소를 접수하였다.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동 법안은 자동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입상들이 수입 신고액을 고의로 낮춰 통관(언더밸류) 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이에 코스타리카 의회는 논란이 되었던 “수출국 세관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수출상이 작성한 통관서류 사본”으로 수정하여, 지난 2005년 10월 25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발효시키고 2007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 수입 통관 시 제출 의무 서류

- 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 ②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 ③ 선하증권(B/L)
- ④ 수출자가 작성한 수출통관 서류 사본 (수출상품의 실제 가격, 수입자의 이름, 전체 중량(Gross Weight) 및 제품중량(Net Weight), 컨테이너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 ⑤ 그 외 코스타리카 법으로 지정된 요청서류

단, 4번 항에 요청되는 서류의 경우 2000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 구호물품, 여행객의 수하물, 주정부에 의해 수입되는 공공용품, 비 상업성의 견본, 중미 상품코드 192조에 해당하는 비 상업성 우편물, 관(영구), 납골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비 상업성의 소품 및 수입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4번 항의 요청되는 서류가 스페인어로 발행이 불가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 서류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누락됐을 경우 수입자는 누락된 정보를 기재한 후 이면에 수입자의 책임하에 통관했음을 서명해야 한다.

나. 수입쿼터

코스타리카는 제조업 취약 문제로 대부분의 공산품이 수입되고 있어, 사실상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재정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 생산품목 보호를 위해 이들 수입국에 대한 간단한 수입쿼터제를 마련하고 있다.

수입품목 및 쿼터량	관세	판매세	긴급재정세	총수입재세
소고기: 2500 Tone - 칠레만 해당				
쿼터 이내	4.90%	0.00%	1.00%	5.90%
쿼터 이상	14.00%	0.00%	1.00%	15.00%
돼지고기: 525 Tone - 캐나다만 해당				
쿼터 이내	17.25%	0.00%	1.00%	18.25%
쿼터 이상	45.00%	0.00%	1.00%	46.00%
닭고기: 2070 Tone - 도미니카 공화국만 해당				
쿼터 이내	23.00%	0.00%	1.00%	24.00%
쿼터 이상	40.00%	0.00%	1.00%	41.00%
우유: 2200 Tone - 도미니카 공화국만 해당				
쿼터 이내	19.50%	0.00%	1.00%	20.50%
쿼터 이상	65.00%	0.00%	1.00%	66.00%
밀가루: 10500 Tone 캐나다만 해당				
쿼터 이내	0.00%	0.00%	1.00%	1.00%
쿼터 이상	5.00%	0.00%	1.00%	6.00%
기타 곡물가루: 5250 Tone - 캐나다만 해당				
쿼터 이내	0.00%	0.00%	1.00%	1.00%
쿼터 이상	5.00%	0.00%	1.00%	6.00%
식용유 : 1260 Tone - 캐나다만 해당				
쿼터 이내	5.00%	0.00%	1.00%	6.00%
쿼터 이상	14.00%	0.00%	1.00%	15.00%
설탕 : 15090 Tone - 캐나다만 해당				
쿼터 이내	33.30%	0.00%	1.00%	34.30%
쿼터 이상	45.00%	0.00%	1.00%	46.00%
감자 : 2763 Tone - 캐나다만 해당				
쿼터 이내	15.35%	13.00%	1.00%	31.47%
쿼터 이상	40.00%	13.00%	1.00%	59.33%

** 쌀 및 팥 에도 수입쿼터가 적용되고 있으나, 당해 년 국내 생산량에 따라 쿼터량이 수시로 조정되고 있어, 일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움.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음

5. 관세제도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일원으로,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율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평균수입관세율은 농산품의 경우 11.54%, 공산품은 4.7%, 전체평균 5.68%(자료원: 대외무역부)로, 외견상 중미공동시장이 WTO와 협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중미공동시장 표준관세율 (합의된 달성목표)

품목의 종류	적용 수입관세율
중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중간재 및 자본재	0%
중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0%
중미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5%
중미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소비재	15%

그러나,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수입관세(DAI, 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ÓN) 이외에 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선택소비세(S.C., 특별소비세의 일종), 자동차 및 종교부품에 대해서는 추정이익율제 (M/E)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제품의 수입에는 관세 이외에 판매세(IVA, 부가세) 13%가 추가로 부과 되므로, 코스타리카의 실질적인 수입관세 부과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코스타리카와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소비 선택세가 면제되어, 판매세 13%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코스타리카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중미공동시장, 파나마, 도미니카(공), 멕시코, 칠레, 캐나다 등이다.

코스타리카의 관세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여 송장에 의해 산정한다. 단, 송장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BLUE BOOK이라는 참조가격이 명시되어 있어, 상업 송장에 기재된 제품가격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Blue Book 게재사이트: <http://www.hacienda.go.cr/autohacienda/autovalor.aspx>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과에 기준가격으로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 사정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세관에 송부, 세관에서 이를 기준가격으로 비치한다. 기준가격 설정시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수출국의 현지 판매가격, 가격 구성표, 카타로그 및 수출업자 소개자료, 수입계약서 등이다. 이 외, Golfito 지역에 설치한 면세지대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등 대신에 18%의 일괄관세율을 부과하는 Golfito 관세제도도 있으나, 품목 및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 추정이익률제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용 중고부품에 해당되는 제도로, 신차의 경우는 언더밸류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중고차나 중고부품은 수입을 억제, 대기오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적용하고 있다. 추정이익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수입관세, 선택소비세, 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 업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추정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다. 추정이익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의 경우 25%, 자동차용 중고부품은 80%를 적용하고 있다.

□ 선택소비세 (5~30%) 부과품목(관련법령 Ley 4961(1972.3.10))

2203, 2204, 2205, 2206, 2208, 2402, 2403, 3208(5%), 3209(5%), 3210(5%), 3211(5%), 3212(5%), 3214(5%), 3305, 3307, 3401, 3402, 4011, 4012, 4013, 8407, 8408, 8415, 8418, 8421, 8450, 8451, 8507, 8509, 8510, 8511, 8516, 8519, 8520, 8521, 8527, 8528, 8702, 8703, 8704, 8706, 8707, 8708, 8711, 8714, 8716, 9504

※ 일부제품의 수입관세 예시

상품명	LCD TV		신차(1,600CC)		서스펜션 중고부품	
HS Code(중미공통)	8528729000		8703236311		8708801011	
CIF 가격-①	100.0		100.0		100.0	
	세율	금액	세율	금액	세율	금액
수입관세	14%	14.0	0%	0	9%	9.0
선택소비세	15%	17.1	30%	30.0	-	
사회보건기여(6946)	1%	1.0	1%	1.0	1%	1.0
소계-②	32.1		31.0		10.0	
추정이익율	-	0	25%	32.75	80%	88.0
부가세부과기준	132.1		163.75		198.0	
부가세-③	13%	17.173	13%	21.287	13%	25.74
총계(①+②+③)	149.273		152.287		135.74	

- 수입관세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 선택소비세는 (CIF가격+수입관세)을 기준으로 부과
- 사회보건기여(6946)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 추정이익율은 (CIF가격+수입관세+선택소비세+사회보건기여)를 기준으로 산정
- 부가세는 (CIF가격+수입관세+선택소비세+사회보건기여+추정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

6. 주요인증제도

코스타리카에는 특별한 인증제도는 없으며, 수입시 핸드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만이 전력통신공사,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교역관련 주요 법규 참조). 하지만 미국의 FDA, FCC 및 유럽 공동체 EC 인증이 있을 경우, 사전 허가 및 등록이 수월하며, 판매 시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7. 지적재산권

코스타리카 지적재산권 보호는 1949년부터 법으로 지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국립 저작권 등록원(Registro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 y Derechos Conexos)이 1989년에 설립되어, 상표권 등록 및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지적재산권 국제기구(WIPO) 및 파리협약, 베르나협정에 가입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등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스타리카 불법 복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04년 67%로 집계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 특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멕시코의 특허를 소지한자는 특허소지자가 특허품 또는 특허 공정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부여받은 후 3년 이내에 특허를 이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만일 특허 소지자가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산업부는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독점적인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불해야 할 로열티 및 다른 허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다.

만약 의무적인 허가가 부여되고 2년이 경과되고도 특허 소지자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나. 상표

관련 법에 의거, 상표는 1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무한정으로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다.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저작권 보호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코스타리카 국립 저작권 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상업적으로 이들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보호 받고 있는 소재를 이용하거나 재생산하는 제품은 동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해당 기업의 사용 승인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라. 국립 저작권 등록원(Registro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 y Derachos Conexos)

- 홈페이지: www.registronacional.go.cr
- 전화: 225-3460
- 팩스: 280-7794
- 이메일: derautores@rnp.go.cr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코스타리카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 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 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품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0 일 기한이 만료되기 몇 일전 세관은 공문으로 수입 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재수출시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관시 구비서류로는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 상업송장,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수입허가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타 제 증명서(필요한 경우/ 예: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등이 있다.

통관은 직접 개인이 해도 무방하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화물가격의 0.8%정도이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동 신고 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 보고서(INFORME DEVERIFICACIO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 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자체 가격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입 상품 총액이 미화 천불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동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 승인 또는 반려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익일부터 10 근무일이 경과하면 수입신고가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제부는 신고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통관 절차

통관사 선정 -> 수입면장 작성 -> 제 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검토 -> 화물 검사여부 결정 -> 화물검사 -> 화물 인수

나. 운송

1) 주요 항구

코스타리카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모두 접해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Puntarenas, Caldera 항구를, 대서양(카리브해) 연안에 Limon, Moin항을 보유하고 있다. Limon 항에는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기착하며, 유럽 수출 농산물을 비롯한 수출입 화물물동량의 80%가 이들 대서양 연안 항구를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서양 연안 항구의 중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태평양 연안의 Caldera 항구는 산호세 도심에서 1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리적으로 수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이며, 주로 자동차, 일반 공산품의 수입항구이다. 최근 들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주요 공항

코스타리카는 현재 2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산호세 외곽 16Km에 위치한 후안 산타마리아(Juan Santamaria) 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 서북부 Guanacaste 지역에 위치한 Daniel Oduber 공항이다.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하는 Juan Santamaria 공항은 산호세에서 약 17KM 떨어진 알라후엘라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미국 Bechtel사 컨소시움에 20년간 운영권을 넘겨 민간기업이 운영 중이다.

Juan Santamaria 공항은 2010년까지 이용객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여 중미지역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항공 화물은 동 공항을 통과하여 운송되고 있다. 한편 Daniel Oduber 공항은 관광지에 위치하여 연말 관광성수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관광객을 실은 부정기 전세기가 기착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3) 주요 통관 및 운송 회사

- American President Lines (Costa Rica) S.A. (APL) (통관 대행, 국제 운송)
 - 전 화: (506) 208-4600
 - 팩 스: (506) 208-4620
 - E - Mail: servicio_cliente@apl.com
 - 홈페이지: www.apl.com
 - 담당자: Antonio Souto Pérez / tony_souto@apl.com / General Manager
- Grupo Servica – Menlo Logistics (국제 운송)
 - 전 화: (506) 437-5800 / 431-2715
 - 팩 스: (506) 443-1950 / 442-6901
 - E - Mail: servica@gruposervica.com
 - 홈페이지: www.servica.co.cr
 - 담당자: Harry Segura / hsegura@gruposervica.com / Sales Manager
- Transportes Panamá–Costa Rica (Paco) (통관 대행, 국제 운송)
 - 전 화: (506) 272-1948 / 430-2474
 - 팩 스: (506) 272-3808 / 430-2475
 - E - Mail: paco@grupopaco.com
 - 홈페이지: www.grupopaco.com
 - 담당자: Carl Jenseng / cjenseng@grupopaco.com / General Manager
- Rex Internacional / Bax Global (국제 운송)
 - 전 화: (506) 209-7000.
 - 팩 스: (506) 293-5725
 - E - Mail: ventas@rexcargo.com
 - 홈페이지: www.rexcargo.com

- 담당자: Cristian Villegas Solera/ Regional Manager/ cvillegas@rexcargo.com
Alvaro Mauricio Alpizar/ Regional Director/ amalpizar@rexcargo.com
- **Sociaco (Sociedad Apícola Costarricense S .A) (국제운송)**
 - 전화: (506) 221-2130
 - 팩스: (506) 257-3918 / 257-4012
 - E-Mail: info@sociaco.com
 - 홈페이지: www.sociaco.com
 - 담당자: Edgar Soto Soto / esoto@sociaco.com / General Manager
- **Antares Carga Aérea y Marítima S. A (통관 대행, 국제 운송)**
 - 전화: (506) 293-1017
 - 팩스: (506) 293-1018
 - E-Mail: info@antares.co.cr
 - 홈페이지: www.antares.co.cr
 - 담당자: Gilbert Soto / gsoto@antares.co.cr / President
- **Agencia de Aduanal Arce Campos (통관 대행, 국제 운송)**
 - 전화: (506) 257-9555
 - 팩스: (506) 221-1549
 - E-Mail: info@arcecampos.com
 - 담당자: José González / jgonzalez@arcecampos.com / Operations Manager
- **Intertrans Aérea y Marítima S. A (국제 운송)**
 - 전화: (506) 223-3473 / 258-5622
 - 팩스: (506) 257-8254 / 248-0654
 - E-Mail: info@intertranscr.com
 - 홈페이지: www.intertranscr.com
 - 담당자: Edwin Flores Ulloa / eflores@intertranscr.com
- **Empresa Centroamericana de Transporte S.A. (ECATRANS). (국내 운송)**
 - 전화: (506) 265-0832
 - 팩스: (506) 265-6262
 - 홈페이지: www.ecatrans.com
 - 담당자: Alfonso Molina / amolina@ecatrans.com / General Manager
- **Transportes H y H S.A. (국내 운송)**
 - 전화: (506) 233-1919
 - 팩스: (506) 221-8787
 - E-Mail: transhyh@racsa.co.cr
 - 담당자: Gonzalo Herrera / alizano@transhyh.com / Gerente General.
- **TNT Expreso Mundial S.A.**
 - 전화: (506) 233-4993
 - 팩스: (506) 221-5046
 - 담당자: Luis Carlos Salas / luis.salas@tntcr.com / Comercial Manager

○ AIMI Consolidaciones

- 전 화: (506) 2398181
- 팩 스: (506) 2398282
- E-Mail: gerencia@aimicargo.com
- 담당자: Romulo Ugalde / rugalde@aimicargo.com / General Manager

○ DHL Express & Logistics

- 전 화: (506) 209-0000
- 팩 스: (506) 209-0001
- E-Mail: scr.mail@dhl.com
- 담당자: Fernando Cruz Van der Lat/ tatiana.mora@dhl.com/ General Manager

○ Kuehne & Nagel

- 전 화: (506) 220-2660
- 팩 스: (506) 291-5343
- E-Mail: Javier.ramirez@kuehne-nagel.com
- 담당자: Javier Ramírez / General Manager

○ Corporación Oceánica Internacional

- 전 화: (506) 293-1044
- 팩 스: (506) 293-1051
- E-Mail: cs@oceanica.co.cr
- 홈페이지: www.oceanica.co.cr
- 담당자: Ing. Francisco Cordero / General Manager

□ 운송료 (2007년 9월 기준)

* 현지운송사에 견적한 것으로, 한국-코스타리카 운송의 경우, 한국 선사를 접촉하면,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

해상운송

운송사	단위	도착지	요금
해운 A. P. L	40FT 컨테이너	Caldera - Busan	\$1,560
해운 AIMI	40FT 컨테이너	Busan - San Jose	\$4,300

항공운송

운송사	단위	도착지	요금	
항공 INTERTRANS	KG	San José -Seoul	무게	요금
			최소선적요금	USD \$250.00
			+ 100 kgs	USD \$3.50/kg
			+ 500 kgs	USD \$2.85/kg
			+3000 kgs	USD \$2.85/kg
			FSC	USD \$40.00/kg
			SSC	USD \$15.00/kg
			DGAC	USD \$1.00/kg
			THC	USD \$30.00/shpmt
			AWA	USD \$75.00
			DOCS	USD \$45.00
항공 DHL-courier	KG	San José -Seoul	무게	요금
			0 ~ ½ kg	\$113.81
			½ ~ 1 kg	\$134.62
			1 ~ 1½ kg	\$155.43
			1½ ~ 2 kg	\$176.24
			2 ~ 2½ kg	\$197.05

IV. 투자

1. 투자환경

코스타리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안정, 질 높은 생활여건, 전문인력, 주변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을 강점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최근 정권들도 국가경제에서 공공부문 비중 축소, 인근 주요국가와의 자유 무역협정, 주요 투자 유망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염두에 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현재 멕시코, 칠레, 파나마,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 중미 5개국 공동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하였고,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한국 등과는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코스타리카는 민관합동으로 외국인투자 진흥기구(CINDE: Coalición de Iniciativas de Desarrollo, www.cinde.org)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특히 환경친화적 첨단 기술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유치에 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4천불에 이르러, 여타 중미국과는 달리 단순 노동 집약산업의 투자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10 여개사가 활동 중이던 한국의 봉제 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철수 내지 인근국가로 이전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Intel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공장, Abbott 등 다국적 제약업체 생산공장,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콜센터 등이 코스타리카에 설치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코스타리카는 전문인력을 이용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비교적 앞선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 중남미 IT산업 진출거점으로도 활용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타리카는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관련 별도 법령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국기업 투자와 차별적인 인센티브나, 제약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공중보건이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제만 없다면 어떤 기술의 도입도 가능하고, 자본투자나 과실송금에 있어서도 제한은 없고, 다만, 5 만불이 넘어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자제한에 대한 원칙은 없다. 그러나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참여가 제한된 사업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독점 부문

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사업, 석유수입, 그리고 보험업은 국가 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향후 CAFTA 발효와 함께 동 시장에 대한 점진적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나. 전력생산 부문

코스타리카에서 전력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 전력생산량은 전국생산의 15%로 제한되며, 개별 민간기업의 전력생산은 20 메가와트까지만 허용된다.

다. 언론부문

외국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분야로서, 외국기업은 코스타리카 일간지 발행, 광고사업 등에 투자할 수 없다.

라. 관광 서비스 부문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마. 교통운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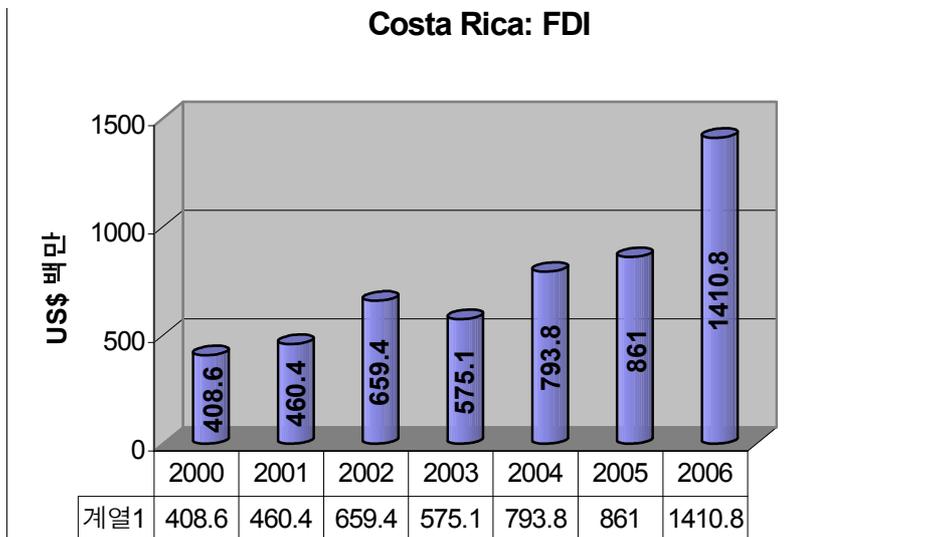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사업 면허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 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해운운송 면허의 경우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한다.

바. 투자허가

코스타리카 외국인 투자관련 특별한 허가 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투자진출 형태에서 현지법인 설립 부분 참조 요망)

2. 외국기업 투자동향

2006 년 기준 코스타리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은 부동산과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총 U\$ 14 억 1,080 만 달러를 기록, 2005 년보다 약 U\$5 억 5 천만 불(64%) 증가하였고, 전체 투자 유치 규모에 있어서, 중미 지역에서 투자 유치국 1,2 위를 다투던 파나마를 제치고 외국인 투자에 가장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자료제공 :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국가별 투자 동향을 보면, 코스타리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이 6 억 9540 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액의 49%를 차지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부동산 및 은행인수 등으로 투자액을 3 억 3,580 만불로 크게 늘려, 2005 년에 이어 제 2 의 투자국가로 올라섰으며, 이 외, 인근 중미국가, 콜롬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가별 투자동향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259.1	328.1	358.8	552.8	599.9	695.4
캐나다	36.0	-9.6	17.5	13.3	45.0	335.8
콜롬비아	6.4	2.6	-0.2	16.4	14.6	72.6
엘살바도르	16.4	23.4	25.4	12.8	18.8	33.2
멕시코	33.1	31.2	38.0	28.8	36.1	30.7
파나마	63.3	33.0	1.5	18.1	37.3	29.2
네덜란드	2.5	229.2	29.7	23.6	8.5	26.2
독일	3.3	1.3	57.8	14.6	4.8	25.4
일본	1.3	0.8	-0.7	0.6	-0.5	22.2
영국	-0.9	-2.8	-3.2	3.8	-1.1	21.4

코스타리카는 투자외국기업에 대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 주변 중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정치적 안정성, 뛰어난 인력자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안정된 정치 및 경제상황, 코스타리카 정부의 단계적인 발전 계획, 치안안정 등 기반 사업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특히 다른 중미 국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코스타리카의 뛰어난 인력자원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빛을 보고 있다. 관광산업 투자를 제외한, 제조산업의 주요 외국인 투자는 자유무역지대(Zonas Franca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Free Zone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이 코스타리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할 만큼,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Free Zone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코스타리카 Free Zone 의 발전가능성은 단순히 수출액 증가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기술집약산업의 전초 기지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코스타리카 Free Zone도 초기에는 타 중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섬유산업 집약적인 구조에 기초하였으나, 현재는 전자제품 및 소프트 웨어, 의약품 제조등의 기술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예로 Intel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필립스, Remec, Trimpot등 다수의 외국계 전자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1997년 30%에 육박하던 섬유 수출이 2003년 10%로 축소되고, 대신 전자제품 수출이 20%에서 50%로 증가라는 성과를 얻었고. 아울러 Abbott, Baxter, Pfizer 등 세계 유명 의약품 제조 회사들이 코스타리카 Free Zone을 생산기지로 삼고 1999년-2002년 간 의약품의 200% 신장을 이루어내 2003년에는 기존 의약품이 코스타리카의 4번째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듯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가장 안정된 투자 여건과 Free Zone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고급기술인력 배양 등을 경쟁력으로 갖추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능한 나라로 기대되고 있다

□ 코스타리카 Free Zone 현황

- 국민 총생산(GDP)에서 Free Zone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1년 3.9%에서 2003년 8%로 증가
- 전체 국가 수출액 중 Free Zone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7.6%에서 2003년 53.7%로 증가
- Free Zone 참가업체: 96개국 145개사
- Free Zone 고용인원: 35,000명

□ 코스타리카 주요 투자사 현황

- Intel S.A (미국)
 - 최초투자연도: 1998년 3월
 - 투자목적: 인텔 컴퓨터 칩 중남미 생산기지 구축
 - 지역: Heredia (수도 산호세로부터 10KM에 위치한 제 2 도시)
 - 공장부지: 52헥타아르
 - 최초 고용인원: 950명
 - 현재 고용인원: 3,500명
 - 총투자금액: U\$7억 3200만불

- 2006 투자계획: U\$8,000 만불
- 2005 년 기준 수출금액: U\$14 억 4000 만불
- Heineken (네덜란드)
 - 최초투자연도: 2002 년
 - 투자목적: 코스타리카 맥주 제조사인 Florida Bebidas S.A 사의 지분 확보 (현재 25%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임)
 - 현재 고용인원: 2,300 명
 - 총투자금액: U\$2 억 3000 만불
 - 2005 년 기준 매출: U\$2 억불
- Abbott Hospitales de Costa Rica (미국)
 - 최초투자연도: 1998 년
 - 투자목적: 의료기구 제조
 - 지역: 자유무역지대 (Zona Franca)
 - 현재 고용인원: 2,000 명
 - 초기 투자금액: U\$6,000 만불
 - 2005 년 기준 수출금액: U\$3 억불

3. 우리기업 투자동향

1990년대 중반까지는 봉제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국기업이 코스타리카에 투자 진출 하였으나, 코스타리카의 임금상승 및 노동법 문제 등으로 현지 봉제공장 운영의 이점이 없어짐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이 2000년 이전 철수 또는 인근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대우버스와 중소 교민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사명	대우버스 코스타리카		
진출국가	코스타리카	진출지역	전체
업체명(영문)	DAEWOO BUS COSTA RICA S.A.		
업체명(영문)	DAEWOO BUS COSTA RICA S.A.		
Address	2.5 KMS. OESTE CENTRO COMERCIAL SANTA ANA, SAN JOSE, COSTA RICA		
Tel	(506)282-9322	FAX	(506)282-5555
E-mail	jhwon@daewoobuscr.com	Home Page	www.daewoobuscr.com
해외대표	권장현 / KWON JANG HYUN		
업종(대분류)	제조업		
업종(중분류)	자동차 제조 판매		
업종(소분류)	자동차		
세부품목	버스제작, 판매 및 정비수리 서비스, A/S 부품 판매		
진출형태	법인-단독		
진출년도	1995 년	종업원현황(한국:외국)	6 : 120 명
설립 자본금	US\$ - 천	총 투자금액	US\$ 6,800 천
국내모기업	(주) 대우버스		
Address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88-9		
Tel	(051) 811-4040		
Fax	(051) 811-4055		
국내대표	최영재		

4. 주요 투자법 내용

코스타리카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을 최대의 혜택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인센티브나 제약은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요 투자유치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광산업 인센티브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국의 관광국가로서 이미지 제고 및 산업육성을 위해 동 부문 투자기업에 다양한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5인승 이상의 차량을 포함, 투자에 수반되는 장비 및 가구 수입관세 면제
- 최초 투자후 12년간 소득세 면제 ('92년 4월 이후 투자는 적용되지 않음)
- 호텔과 관광객 운송에 필요한 자본재의 빠른 감가상각 인정

이와 같은 정부의 인센티브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투자신고 시점에서 투자분야가 관광 산업임을 밝히고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관광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①국가경상수지에 기여, ②고용창출, ③관광부문 수요에 적합성 여부 등이다.

한편 현재 동 관광부문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받고 있는 주요 부문을 보면 호텔업, 항공산업, 렌터카, 여객선, 여행사 운영 등이다.

나. 수출지향 Free Zone 입주산업 인센티브

코스타리카 Free Zone에는 제조상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기업 뿐 아니라 첨단기술산업 및 기술연구소, 선박 건조 및 수리기업 등이 입주가능하며,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한다.

- Free Zone 내 영업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장비 및 기계, 차량 등 수입시 제세 및 영사수수료 면제
- 투자 후 10년간 자본, 자산, 부동산 관련 제세 면제
- 현지 구매물품에 대한 판매세, 소비세 면제
- 해외송금 관련 제세 면제
- 생산량의 40%까지 수입제세 납부후 내수시장에 판매가능
- 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면제
 - 고성장지역의 경우 초기 8년간 100%, 추가 4년간 50% 감면
 - 저성장지역의 경우 초기 12년간 100%, 추가 6년간 50% 감면
 - 정부지정 저성장지역 투자시 인건비로 지불한 비용의 10%를 정부지원금으로 환불

다. 삼림보존 인센티브

코스타리카 정부는 관광, 환경보존에 대한 국가이미지 유지에 노력, 내외국인 법인이나 개인이 삼림보존에 노력할 경우 삼림보존확인서(Certificate for Forest Conservation)를 발급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동 확인서는 최근 2년간 대상지역에서 벌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향후 확인서 유효기간 동안 벌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담보로 발급되며, 대상토지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 100% 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
- 경찰의 특별보호 프로그램으로 불법점유, 무단 침입으로부터 보호

한편 기존 삼림의 보호뿐 아니라 나대지, 경작지 등에 삼림을 조성하는 경우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타당성 조사

코스타리카에 투자를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인건비 측면에서는 경쟁력 취약

코스타리카의 중미 선진국으로서 1 인당 GDP가 4 천불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단순 봉제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는 투자 경쟁력이 떨어지며, 우리 기업들도 90년대 중반까지 15개 내외 섬유기업이 코스타리카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대우버스 1개사를 남기고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 기술상품 생산지로서는 유망

코스타리카는 대부분 중미국가와는 달리 내전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유치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기업인 Intel, 다국적 제약업체인 Abbott 등이 코스타리카를 투자지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는 백인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양호한 교육, 의료, 통신 등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콜센터를 코스타리카에 운영할 정도로 영어 구사자 저변도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 FTA 활용 필요

코스타리카는 인구 400만 국가로 자체 시장은 협소하나 인근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넓은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스페인에서 독립할 당시 같은 나라였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와는 중미공동시장을 통해 자유무역을 포함한 공동시장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외에 카리브 도서국가, 멕시코, 칠레, 캐나다 등과 FTA가 발효 중이다.

또한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즉 CAFTA 발효를 준비 중이며 정부간 공식 합의를 거쳐 2007년 10월 7일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이 결정된다.

나. 투자진출형태

코스타리카 투자 진출형태는 진출 목적에 따라 지사와 현지법인 형태로 구분된다. 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설립이 가능한 회사형태는 주로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합명회사(Sociedad en Nombre Colectivo, SNC),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SCS) 등 4 가지 기업 형태로 분류된다. 주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가 많이 발견된다.

다. 현지법인 설립 절차

1) 1 단계: 회사 정관의 작성

공증사무소(Notario Público)에서 회사 정관을 스페인어로 작성한다. 동 정관(acta constitutiva)에는 최소 2 명의 주주 성명 및 주소, 자본금, 회사 청산 방식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명은 가상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페인어,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정관작성은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2) 2 단계: 상업등기소 등록 (15~30 일 소요)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등록은 법인의 상호등록, 법인번호 발급 등의 의미가 있다. 신규 회사설립, 기존회사 자본금 증액 등 투자행위는 은행계좌 입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정관을 등기하는 시점에 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이 입금되어야 한다. 일단 기업이 등록되면 은행예치금은 기업대표자만 인출이 가능하다. 회사설립 등기는 통상 15~30 일 내외가 소요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법인설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코스타리카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내에 연락처를 두고 있는 직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3) 3 단계: 재무부에 법인 납세자 등록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소정양식(Form D-140)을 제출함으로써 납세자 번호(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회계서류를 확인 받는다. 동 납세자번호는 정부의 각 공식적인 서류 기입시 사용하며, 회사의 지출행위에 따른 공식 영수증 발급에도 사용된다. 납세자번호가 없을 경우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다.

4) 4 단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회사 설립 후, 투자금액이 5 만불 이상인 경우는 과실송금, 배당금의 송금을 위해 중앙 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Free Zone 입주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의 승인을, 임시반입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승인을 받는 등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5 단계: 기타 면허 신청

사업업종에 따라 필요시 환경면허, 위생확인 등 면허와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영리 활동기업은 소재지 시청에 영업면허(Patente Municipal)를 발급받아야 한다.

라. 투자방식

외국인은 단독 또는 합작투자 방식으로 현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이든 합작 투자인 설립절차 상의 차이점은 없다. 다만 합작투자의 경우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제 3 자와의 계약을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3 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합작된 양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6. 투자입지여건

코스타리카는 전통적인 농축산 국가로서 바나나, 멜론, 파인애플, 커피 등 농산물의 경우 지역별로 대규모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육성된 산업이며, 아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국의 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는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다. 다만 코스타리카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품을 수출하는 주요기업들은 대부분 Free Zone에 입주하여 세금감면 등 혜택과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가. 자유무역지대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는 국가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으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외국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투자 15만불 이상 등 적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Free Zone 입주대상

- 수출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Free Zone에 입주하여 상품을 제조, 조립, 가공처리 하는 기업
- 외국이나 Free Zone 입주기업에 용역을 제공(수출)하는 기업
-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설 Free Zone 운영기업
-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연구소 및 연구기관
- 선박 건조, 수리 및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Shipyard, Dry Dock 운영업체

□ Free Zone 입주기업 주요 혜택

- 생산에 투입되거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원자재, 소모품 수입시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 면제
- WTO 가이드라인에 의거 2007.12.31일까지 Free Zone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출세, 지방세, 배당소득세 100% 감면
- 자본금 재송출 보장기업설립 및 운영과 관련 행정수속 일원화, 간소화, 지원사무소 운영
- 전체 매출의 25%까지 코스타리카 내수시장에 판매 허용

□ 주요 Free Zone 현황



America Free Zone
Phone: (506) 239-4450
Fax: (506) 265-6431
info@americafreezone.com



Metro Free Zone and Office Park
Phone: (506) 239-5000
Fax: (506) 239-1878
metrofz@racsa.co.cr
www.metrofz.co.cr

Bes Free Zone Industrial Park

Phone: (506) 438-1111
Fax: (506) 438-2222



Parque Industrial Zona Franca SARET
Alajuela
Phone: (506) 443-0001
Fax: (506) 443-0202
management@gruposaret.com
www.gruposaret.com



Forum Office
Phone: (506) 204-7010
Fax: (506) 204-7020
akader@genesis.co.cr
iclare@genesis.co.c
www.genesiscostarica.com



Parque Industrial Zona Franca SARET
Puntarenas
Phone: (506) 666-2412
Fax: (506) 663-2650
zfp@gruposaret.com
www.saretzfp.com



Global Park Free Zone & Business Park
Phone: (506) 209-5959
Fax: (506) 209-5960
mercadeo@globalparkcr.com
www.globalparkcr.com



Ultrapark Free Zone
Phone: (506) 293-4616
Fax: (506) 293-4715
info@ultrapark.com
www.ultrapark.com



Zeta Group (Industrial Parks in Cartago,
Alajuela and Heredia)
Phones: Headquarters (506) 224-3333
Cartago: (506) 573-7610
Alajuela: (506) 441-2698
Toll Free: 800-8424882
Fax: 234-7444
grupoz@racsa.co.cr
www.grupozeta.net

나. 공장설립

코스타리카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장설립 주관 기업이 국립 등기소(Registro Naciona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 절차는 투자진출 형태 참조)

1) 공장설립 계획 수립

공장설립 전 공장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공장 설계, 건축 대행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장 부지 선정 시에는 해당 토지가 공업용 용지로 적합한 지,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

- 주요 검토 사항 및 문의처
 - 전기, 전자, 통신시설 기반 - 코스타리카 전력공사(ICE : www.ice.go.cr)
 - 인터넷 인프라 - 코스타리카 전력공사, RACSA (www.racsa.co.cr)
 - 쓰레기, 오물 수거 지원 여부 - 소재지 시청
 - 공업용수, 식수 공급 여부 - 코스타리카 수도공사 (AyA : www.aya.co.cr)

2) 공장설계 도면 사증 취득 (Visado de Planos)

공장설립을 위해 시청 및 환경청, 보건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공장설계 도면은, 코스타리카 국립 건축 기술 연구소(CFIA)의 검토를 받아 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증은 제출된 설계 도면에 첨부됨)

- 소요기간 - 약 3 주
- 소요비용 - 총 건축비용의 0.00265% 납부

3) 환경 영향 평가서 취득

코스타리카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장 설립 시에도 코스타리카 환경청(SETENA)으로부터 공장설립으로 인한 환경 영향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평가항목 - 환경오염 가능성 여부, 환경오염 시 오염 정도, 잠재적 환경 영향도
- 소요기간 - 공장 취급 품목 및 규모에 따라 평가기간이 달라지며, 품목이 환경오염과 큰 관계가 없을 경우 최소 3주, 복잡한 사안일 경우 최장 1년.
- 비용 - 환경영향 평가 신청에는 U\$10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되나, 실질적으로 공장 설립 시 환경 보전 보증금의 명목으로 총 건축비용의 1%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환불 불가)

4) 건축허가

상기 모든 서류가 갖춰진 후에는 소재지 시청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설계 도면, 토지소유권(또는 토지 대 계약서) 토지 도면
- 소요기간: 약 1주일
- 소요비용: 건축세 - 총 건축 비용의 1%

공장설립이 완료된 후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에 공장 및 공장 직원에 대한 산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코스타리카 사회보장부 (CCSS)에는 공장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코스타리카 보건국 (Ministerio de Salud)에 공장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검사 후, 운영허가권(Permiso de Fucionamiento)을 받아야 한다.

7. 노무관리

코스타리카 노동관계 규정은 노동법(Codigo de Trabajo)을 따르고 있으며, 동 노동법에서는 “노동서비스와 금전적 보상의 교환관계와 고용주가 고용자의 지휘통제 관계”가 존재하면 고용이 성립하며 노동법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노동법에 규정된 주요 노동관계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근무시간

- 일일 및 주당 근무시간
 - 주당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 일 기준 주간 8 시간, 야간 6 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함.
 - 19:00~05:00 사이에 3 시간 반 이상 근로하면 야간근로로 간주됨.
- 초과 근무시(시간외, 휴일특근) 지급율
 -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50%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함.
 - 휴일 근무의 경우 100% 할증임금을 지급함.
- 법정 공휴일
 - 1/1 일, 4/11 일, 부활절 목-금요일, 5/1 일, 7/25 일, 8/15 일, 9/15 일, 12/25 일
 - 8/2 일, 10/12 일은 공휴일이나 급여지불이 강제되지는 않음.

나. 보수 및 복리후생

- 월급(기본급)은 통상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명목금액이며, 공장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급과 월급의 중간형태인 월 2 회 급여지불이 일반적임. 한편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 법정 상여금으로 매년 12 월 1 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매년 2 주(12 근무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한편 코스타리카 사회보장법에 의거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직업상 위험과 관련, 사회 보장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코스타리카 사회보장기구(CCSS)는 불구 및 노후연금과 함께 질병, 임신, 직업병 및 사고시 피고용인 및 부양가족의 진료, 입원, 실업 보상금 등을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함.
- 사회보장세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23%를 부담해야 하며, 노동자도 급여의 9%를 부담한다.
- 사회보장세의 주요 항목별 납부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고용주 부담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구 징수		
- 의료출산보험	9.25	5.50
- 연금생명보험	4.75	2.50
기타기관 징수		
- 근로자 의무저축	0.50	1.00
- 빈곤퇴치기금	5.00	
- 직업훈련원	1.50	
- 기타	2.00	
총 계	23.00	9.00

다. 최저임금

코스타리카는 매년 2 회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직종별, 숙련도별로 세분화된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2007 년 6 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U\$1=c/515)

- 농업분야 (농수축산, 광업, 건설 등 부문에 적용) : 일당
 - 미숙련자: c/5,206
 - 반숙련자: c/5,718
 - 숙련자: c/5,969
 - 전문노동자: c/7,170
- 일반 노동자 : 월급
 - 미숙련공: c/156,049
 - 반숙련공: c/169,331
 - 숙련공: c/181,914
 - 전문교육 기술직: c/195,953
 - 특수직: c/209,989
 - 학사학위자: c/355,009
- 기타 최저임금 규정
 - 커피수확 노동자: 상자 당 c/517.80
 - 가정부: 월 c/91,847 (음식 별도 제공)

라. 사회보장제도 개요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제도는 "코스타리카 사회보장기구(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CCSS)"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 기구에 등록하여 일정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의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혜택을 지원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급여의 3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고용주가 23%, 피고용자가 9%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외국인과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는 CCSS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CCSS 소속 병원의 의료시설 낙후와 장시간 대기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CCSS제도는 자연인,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인에 의무적이다.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가진 고용주는 모두 CCSS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노동조합

헌법상으로 인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분야에서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외국인채용

직원채용에 있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외국인 고용비율이나 자국민 고용비율 등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나 근로를 허용하는 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사. 직원의 해고

고용주는 해고의 사유 유무를 떠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요

코스타리카 조세제도는 영토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국적과 주소지를 불문하고 코스타리카 영토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세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세목을 보면 법인 및 개인 소득세, 판매세, 선택소비세, 수입관세, 재산세, 사회보건특별세(Ley 6946)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코스타리카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조금씩 수정되어 오면서 현재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반면 세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누적된 재정적자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단순화 및 효율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세법개정안이 3년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 2006년 7월에 통과되었으나, 세원확대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요 세목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소득세

법인과 자연인이 코스타리카 영토에서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소득에 대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법인과 자연인으로 구분하여 소득규모에 따라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과세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이다.

연간 법인소득 규모	소득세율
13,200,000 콜론 이하 중소기업	10%
13,200,001 ~ 26.553.000 콜론 중소기업	20%
26.553.000 이상의 모든 법인	30%

연간 개인소득 구간	소득세율
881.000 콜론 이하	0
881,001 ~ 1,317,000 해당분	10%
1,317,001 ~ 2,197,000 해당분	15%
2,197,001 ~ 4,402,000 해당분	20%
4,402,000 콜론 이상의 소득해당분	25%

(소득세 개정령 27337 호('98.9.10))

한편,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없이 총소득의 15%를 소득세로 납부하며, 이 때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매세(Impuesto de Venta: IVA)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시 부과되며 일률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가 세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매월 납세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2년 제정된 법령 7293 호에 의거 주요 생필품, 공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교육기자재 등의 판매시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다.

라. 선택소비세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일정품목에 대해 수입 및 판매시 부과하며 세율을 품목별로 10%에서 75%까지 유동적이다. 내국상품이 수출된 후 3년 이내에 재수입될 경우 동 세금은 면제된다.(세부내역은 관세제도 참조)

마. 수입관세

물품 수입시 부과하며 국가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세부내역은 관세제도 참조) 한편, 수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금 자원마련을 위해, CIF의 1%를 사회보장특별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 재산세

보유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시청에 등록된 주택가격(실거래가, 모기지금액 또는 시청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며, 세율은 0.25%이다. 연 1회 부과하며, 분기별로 분납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코스타리카는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으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의 외화 송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이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향후 투자철수 시에도 회수된 투자금액을 전액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5만불 이상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에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한편, 콜롬비아 및 남미 마약상들의 돈세탁을 방지하고자 외환관리법 8204를 제정, UI\$10,000 이상의 금액의 일시 입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일반 시민들은 은행거래 내역에 따른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입,출금 할 수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코스타리카는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나라로, 구조적으로 소량다품종의 오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요청된다. 아울러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회원국이며 중미공동시장은 현재 역내 자유무역 단계를 넘어 관세동맹으로까지 발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통합을 활용하여 시장협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스타리카의 바이어와 상담할 때 보면, 대부분이 코스타리카 시장뿐만 아니라 중미의 다른 지역에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다른 나라의 바이어들도 코스타리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중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국가별로 바이어를 따로 둘 것인지, 중미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바이어를 둘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부피가 작거나 물량이 많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중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바이어를 선정하여 다른 시장까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리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시장규모 협소에 따른 또 다른 현상은 독점계약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여러 공급업체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현지 수요를 발굴하는 수입대리점이 현지에서 다수 발견되는, 일반화된 수입상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업체와의 상담시에도 이들은 처음부터 독점권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현지 시장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상담에 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 수입상과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간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수입상당시 D/A와 같은 신용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현지에서 관행화된 거래조건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수용이 필요하나, 상대의 신용이 검증되기까지 한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신용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물가정보

□ 도시 : 산호세(코스타리카)			- 환율 : US\$1 = 517 Colon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6. 가전제품	
1.1	남성양복(1벌,순모100%)	576.00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49.00
1.2	넥타이(1개,실크100%)	40.00	6.2	VTR(6헤드, 범용)	-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35.00	6.3	DVD Player(범용)	369.00
1.4	양말(1켤레,면100%,현지산)	2.00	6.4	전자레인지	188.00
1.5	코트(1벌,롱코트,추동)	없음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630.00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4.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430.00
1.7	청바지(Levi's)	38.00		7. 잡화	
	2. 식료품		7.1	구두(1켤레, 소가족)	75.00
2.1	쇠고기(1KG,안심)	5.00	7.2	차약(150g, 1개)	2.30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6.75	7.3	칫솔(1개)	2.88
2.3	닭고기(1KG,생닭)	3.00	7.4	면도기(1세트)	15.00
2.4	쌀(1KG,Short Grain)	1.50	7.5	건전지(1세트, 1.5V AA)	2.30
2.5	밀가루(1KG)	1.35	7.6	화장지(1통, 300매)	2.00
2.6	설탕(1KG,백설탕)	1.00	7.7	비누(1개)	2.50
2.7	계란(10개)	0.95		8. 사무용품	
2.8	감자(1KG,현지산)	1.00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5.38
2.9	미네랄워터(1.5ℓ,Cristal- 현지)	1.25	8.2	볼펜(12개)	1.63
	3. 한국식품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63
3.1	고추장(1Kg)	12.54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00
3.2	된장(1Kg)	6.80	8.5	휴대폰(범용형)	50.00
3.3	라면(1개)	0.97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6.30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11.99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66.00
3.5	불고기(1인분, 200g)	12.5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16.96
3.6	삼겹살(1인분, 200g)	10.64		9. 자동차	
3.7	김치찌개(1인분)	11.22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1,950
	4. 기호식품		9.2	엔진오일(1L)	10.76
4.1	햄버거(1개)	3.34	9.3	휘발류(1L)	1.15
4.2	피자(1판)	13.40	9.4	자동차등록비(2,000cc)	496.00
4.3	코카콜라(1캔, 250ml)	0.76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78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74		10. 대중교통	
4.5	담배(수입산, 1갑)	1.15	10.1	지하철(1구간)	없음
4.6	위스키(1병, 750ml)	28.84	10.2	시내버스(1구간)	0.25
4.7	커피(1병, 175g)	3.46	10.3	택시(기본요금)	0.70
	5. 주택(150㎡)		10.4	택시(추가요금/Km)	0.63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800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20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임대자 부담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 도시 : 산호세(코스타리카)			- 환율 : US\$1 = 517 Colon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1. 공공서비스			15. 신문·방송·잡지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57.50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10.57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3.55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15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9.66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015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3.00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3.00		16. 호텔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22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80.4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0.46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5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89.21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80.4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38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9.25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54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00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74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0.00
	12. 교육			17. 임금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2개교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632.56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825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324.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000		18. 노동여건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9,130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300.00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1년간)	9,13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9,130	18.3	사회보장부담(월급여대비%, 연간)	22%
	13. 레저·오락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2일
13.1	골프장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35.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4개월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5,000	18.6	연간국경일	11일
13.3	골프공(1타)	40.00	18.7	토요일휴무(실시여부)	실시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50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8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13.6	영화관람료1회(개봉관, 성인최신)	3.00		19. 사업여건	
	14. 의료·약품		19.1	법정최저자금	20.36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450.0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54.58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38.68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10~30%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7.73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0~25%
14.4	치과(스켈링, 1회)	30.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25%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1.31		※ 19.3~4 자유무역지대만 100% 면제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발굴

코스타리카 바이어 발굴을 위한 업체 정보는 아래 기관 등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다.

- 코스타리카 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 de Costa Rica)
 - Tel : (506) 221-0005
 - Fax : (506) 256-9680
 - 담당자 : David Arias
 - 이메일 : datos@camara-comercio.com
 - 홈페이지 : www.camara-comercio.com

- 코스타리카 공업협회 (Camara de Industria de Costa Rica)
 - Tel : (506) 281-0004
 - Fax : (506) 234-6163
 - 담당자 : Carlos Montenegro
 - 이메일 : cicr@cicr.com
 - 홈페이지 : www.cicr.com

- 코스타리카 건축협회 (Camara Costaricense de Construccion)
 - Tel : (506) 253-5757
 - Fax : (506) 221-7952
 - 담당자 : Martha Gutierrez
 - 이메일 : mgutierrez@construccion.co.cr
 - 홈페이지 : www.construccion.co.cr

- 상공회의소 연합회 (UCCAEP)
 - Tel : (506) 290-5594
 - Fax : (506) 290-5596
 - 담당자 : Carlos Quesada
 - 이메일 : uccaep@uccaep.or.cr
 - 홈페이지 : www.uccaep.or.cr

- 코스타리카 수입협회(CRECEX)
 - Tel : (506) 253-0126
 - Fax : (506) 234-2557
 - 담당자 : Karina Espinoza
 - 이메일 : kespinoza@crecex.com
 - 홈페이지 : www.crecex.com

상기 기관 중 코스타리카 수입협회는 모든 정보 및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현지 수입자를 중심으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해 코스타리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업체에게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수입협회에서 제공하는 바이어 발굴 서비스 및 요금은 아래와 같다.
 - 관련업종 수입업자 리스트 제공: 요금 미정(상담주선 서비스 이용 시 무료)
 - 코스타리카 방문 시 리스트 기준 상담 주선 : U\$180
 - 호텔예약 대행 : 무료
 - 통역 알선 (영어- 스페인어) : 수수료 무료, 통역료 U\$100
 - 교통편 알선: 수수료 무료, 택시 요금 이용자 부담
 - 서비스 준비기간: 상담 22일전 신청 완료해야 함.
- 코스타리카 전화번호부 (Yellow Page)
 - 전화번호부 제조업체의 홈페이지(www.superpaginas.co.cr)를 방문하면 2005년 기준 업종별 업체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그 외 전시회 등을 통해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며, 코스타리카 대표 전시회는 아래와 같다.

- 코스타리카 건축, 건설 박람회 (Expo Construccion)
 - 개최시기: 매년 3월 초
 - 주최 기관 : 코스타리카 건축협회(Camara Costarricense de la Construccion)
 - 이메일 : egomez@construccion.co.cr
 - 홈페이지 : <http://www.construccion.co.cr>
- 산업박람회 (Expo Industria)
 - 개최시기: 매년 4월 중순
 - 주최 기관 : 코스타리카 공업협회(Camara de Industria de Costa Rica)
 - 이메일 : acoll@cicr.com
 - 홈페이지 : www.cicr.com
- 철물 및 공구 박람회 (Expo Ferreteria)
 - 개최시기: 매년 4월 중순
 - 주최 기관: T Y T Tuercas y Tornillos (철물, 공구 잡지사)
 - 이메일 : info@expoferreteria.com
 - 홈페이지 : <http://www.expoferreteria.com>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코스타리카에서 상거래 관행 상 온라인을 통한 거래선 발굴 및 접촉은 쉽지 않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많지 않다. 단순 바이어 리스트 취득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코스타리카 주요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코스타리카 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 de Costa Rica)
 - 홈페이지 : www.camara-comercio.com
- 코스타리카 공업협회 (Camara de Industria de Costa Rica)
 - 홈페이지 : www.cicr.com
- 코스타리카 건축협회 (Camara Costarricense de Construccion)
 - 홈페이지 : www.construccion.co.cr

- 상공회의소 연합회 (UCCAEP)
 - 홈페이지 : www.uccaep.or.cr
- 코스타리카 수입협회(CRECEX)
 - 홈페이지 : www.crecex.com
- 코스타리카 전화번호부 (Yellow Page)
 - 홈페이지 : www.superpaginas.co.cr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시 유의사항

□ 납기준수

코스타리카인의 느긋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 가격, 품질 못지않게 신속한 납기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 기업규모를 보유하고 적정 재고를 통해 신속한 영업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제품교육, 판촉지원, A/S 등 제품 이외 분야에 대한 지원

일반적으로 한국업체들은 제품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제품외적인 부분을 등한시 한다는 평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노력이 요청된다. 우선, 새롭게 시장에 소개된 제품을 선택할 때, 고객들이 상당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을 감안하여, 세일즈맨들이 소매상이나 일반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홍보자료를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수입상들은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서 소매상의 판매사원이 자사제품을 판매한 후 포장재 일부분 등 그 증빙자료를 모아둘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커미션 형태로 보상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입상들은 그 동안 이러한 판촉활동 수행시 한국 수출업체의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수입상의 노력에 대해 판촉물 지원, 마케팅비용 분담 등 보다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World Cup 이후 한국에 대한 국가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도 코스타리카 수입상들은 한국에 대하여 지리적, 문화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고, 제품하자 시 A/S 가능성 등에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대신 A/S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상호 신뢰확보 및 장기적 거래관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

□ 시장이 작다고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 것

코스타리카 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부분 영어 소통이 가능하나, 상담 시 보통 사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하면 상담 성사에 큰 도움이 된다. 코스타리카 국민 성향 상 조그만 가능성을 가지고도 크게 부풀려 말하고, 자신이 바램이 당장 실현 가능한 사업성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 기업들로부터 상담 후 큰 기대를 가지게 하나, 실제 사업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요구된다.

인생이 항상 즐겁고 걱정거리를 원하지 않는 코스타리카인 성향 때문에, 밝고 유쾌하게 상담을 이끌어 가고, 가족이나 축구와 같은 주변 이야기로 공동 관심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방문 시 기념이 될만한 작은 선물(한국 토속품등)을 하거나 식사 초대 등으로 사업파트너라기 보다는 친구로 관계를 쌓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 중의 하나이다.

나.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코스타리카 수입상과 계약 체결 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으며, 국제 관행대로 계약을 맺고 변호사 공증을 받는 것으로 계약 체결은 충분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현지의 조정중재센터를 통한 중재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중재조항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민사소송 제기 시 최소 2~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 판결 후에도 대금회수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서 하나에 의지하여 대금 결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울러 현지 수입상과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간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수입상담 시 신용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첫 거래부터 D/A 등 신용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약 일년간 또는 한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신용상태를 점검한 후, 수출보험 등을 통한 신용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몇 년간 수십 차례 수출거래가 이루어진 업체라도,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시기에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잔여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신용거래 시에는 항상 상대 업체의 현황을 살피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분쟁해결 절차

코스타리카에는 코스타리카-북미 상업회의소(AMCHAM)에서 설립한 조정중재센터가 있어,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재센터는 현지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중재판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민사소송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민사소송 제기 시 최소 2~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 판결 후에도 상대회사의 대금 지불 능력에 따라 대금 지급 방법이 결정되므로, 일단 분쟁 발생 시 대금회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지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을 경우, D/A, D/P등의 대금 결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부득이 외상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보험 부보가 필요하다.

○ 국제조정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Conciliation and Arbitrage)

- 주소: San Jose, Apartado 4946-1000, Costa Rica
- 전화: 506-290-0696
- 팩스: 506-290-0801
- 홈페이지: www.cica.co.cr
- 이메일: info@cica.co.cr
- 참고사항: 코스타리카-북미 상업회의소(AMCHAM)에 의해 1999년 설립되어, 현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AMCHAM 회원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음.

□ 코스타리카 주요 법률사무소

- Nassar Abogados
 - TEL: (506) 257-2929
 - Fax: (506) 248-2021
 - E-mail: info@bufetenassar.com
 - 담당자: Tomas Nassar(tnassar@bufetenassar.com), Monserrat Alfaro (malfaro@bufetenassar.com)
 - 홈페이지: www.bufetenassar.com

- Facio Abogados
 - TEL: (506) 201-8700
 - Fax: (506) 201-8707
 - E-mail: info@faciolaw.com
 - 담당자: Roberto Facio(rfacio@faciolaw.com), Lilliana P. García (lgarcia@faciolaw.com)
 - 홈페이지 : www.faciolaw.com

- Oller Abogados
 - TEL: (506) 257-1290
 - Fax: (506) 222-5494
 - E-mail: info@ollerabogados.com
 - 담당자: Pedro Oller(pedro@ollerabogados.com), Mauricio Bonilla (mbonilla@ollerabogados.com)
 - 홈페이지: www.ollerabogados.com

- BLP Abogados
 - TEL: (506) 205-7179
 - Fax: (506) 205-7980
 - E-mail: info@blpabogados.com
 - 담당자: Luis M Castro(lcastro@blpabogados.com), David Gutierrez (dgutierrez@blpabogados.com)
 - 홈페이지 : www.blpabogados.com

- Abogados Centroamericanos Asociados ACZALAW
 - TEL: (506) 296-5656
 - Fax: (506) 296-2828
 - E-mail: costarica@aczalaw.com
 - 담당자: Michael Bruce(mbruce@aczalaw.com), Oswald Bruce(obruce@aczalaw.com)
 - 홈페이지 : www.aczalaw.com

- Alfredo Fournier & Asociados
 - TEL: (506) 233-6086
 - Fax: (506) 258-0059
 - E-mail: info@fournierlaw.com

- 담당자: Juan Carlos Monge (juanmonge@fournierlaw.com), Octavio Fournier (octaviofournier@fournierlaw.com)
- 홈페이지 : www.fournierlaw.com

○ Facio & Cañas

- TEL: (506) 256-5555
- Fax: (506) 255-2510
- E-mail: info@fayca.com
- 담당자: Rodrigo Oreamuno (roreamuno@fayca.com), J. Enrique Castillo (ecastillo@fayca.com)
- 홈페이지: www.fayca.com

라. 유형별 분쟁사례

중고 자동차 수출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A 사는, 코스타리카에서 3개의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약 80대 내외의 한국산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꽤 규모 있는 현지업체 B사와 3년간 거래해 왔다.

거래업체의 신용도가 쌓인 후 A 사는 B사에게 D/A 외상거래를 제공해 왔으며, 거래기간 동안 외상대금은 차질 없이 지불되어 왔지만, 현지 중고 자동차 시장이 침체되어 가면서, 양사간 공급 물량, 대금결제, 차량 품질 등의 인식차이로 의견 차이가 발생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결국 B사는 한국을 방문, 새로운 공급체 C사와 거래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A사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일방적으로 A사에 대한 당시 미지급액 지급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A 사는 동 D/A 거래에 있어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부보를 한 상태라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대금 보상 및 현지업체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몇 년간 수십 차례 수출거래가 이루어진 업체라도,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시기에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잔여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신용거래 시에는 항상 상대 업체의 현황을 살피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능하면 수출보험 공사를 통한 보험 부보가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코스타리카의 경우, 자체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코스타리카에 진출하는 데 있어, 큰 애로사항은 없는 편이다.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발생하는 조세문제, 통관문제, 노무관리문제 등이 거의 없는 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이다.

투자와 관련해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기업과 똑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주변 중미국에 비해서 투자여건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국간에 투자보장협정은 체결되어 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서, 과실송금 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예전에는 한국의 섬유봉제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으나,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주변 다른 중미국가로 이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다른 진출의 실패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대우버스의 경우, 코스타리카의 버스시장 특성을 잘 읽은 편인데, 다른 중남미 국가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이 10년 이상 낡은 버스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코스타리카는 다른 국가보다 소득수준도 높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어, 버스회사들이 신차를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 현지에 버스 조립생산공장을 설립한 경우이다.

현재는 현지 버스신차 수요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확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등을 상대로 주변국으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코스타리카의 경우, 자체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뛰어난 노동인력을 구할 수 있고, 영어구사인력도 많기 때문에, 중미시장 관리를 위한 거점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주거환경 및 주요 거주지역

산호세는 북위 10 도선 부근의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해발 1,150 미터 고원지대에 위치연중 우리나라의 봄날씨에 해당하는 상춘(常春) 기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후적인 주거여건은 매우 양호하며,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진이 잦은 만큼 주거지 선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호세 시에서는 높은 고층건물이 많지 않으며, 최근 들어 고층 아파트가 주거형태로 인기가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현지인들은 고층보다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지를 선호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기둥과 벽면은 튼튼하게 짓지만 천정부분은 가벼운 건축자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도 지진에 대비하는 현지 건축물의 특징 중 하나이다.

코스타리카의 특징적인 거주형태로 타운하우스 형태의 콘도미니오(Condominio)가 있다. 콘도미니오는 동일 담장 안에 수 채에서 수 십 채의 주택들이 들어있는 형태로 공동 경비를 두고 단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치안과 관리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비로 입주자들이 분담한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사무실이 밀집한 Sabana 지역이 가깝고, 교육, 쇼핑 시설이 잘 갖춰진 산호세 서부 로모세르(Rohrmoser) 지역이나 서쪽 위성도시인 에스까수(Escazú)나 과치벨린(Guachipelin) 등이다.

나. 주택임차

코스타리카의 주택임차료는 지역별, 주택형태별로 임차료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 평 내외의 서민 아파트는 월 300 불 내외면 임차가 가능하지만, 골프장 주변에 조성된 고급 주택은 월 5,000 불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식 공동주택은 대개 150~200 s/m 규모이며, 우리나라 평수로 약 40~60 평 내외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내진설계로 인해 기둥과 벽면이 많고,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거주공간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단지 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1 층은 부엌과 거실, 응접실로, 2 층은 침실로 이뤄진 2 층 건물이며,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집이 많다.

주택 임차시장의 경우, 공급이 더 많은 편이라서, 집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 치안,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주택을 찾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한달치 임대료에 해당하며, 이는 전액 임대주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보통 1 개월치의 임차료를 내게 되며(2 개월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 해지시에 반환토록 되어있으나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주택임차료의 인상은 통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데, 이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된다. 달러화로 계약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보통 미국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교육

정식 한국학교는 아니지만 한인회에서 설치한 한글학교가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전 8 시부터 12 시까지 운영되며, 장소는 한인교회이다. 수업료는 1 인당 월 U\$10(4000 콜론) 수준이며, 연락처는 교사협의회장 이승희(506-237-1930), 한인회 문화부장 박대인(506-226-3817)으로 하면 된다.

외국인 학교로는 미국계 Country Day School (CDS),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AIS), 영국계 British School과 현지 Lincoln School 그리고 기타 다수의 현지 International School 들이 있다.

이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면접을 요청하면 된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에서는 영어 내지 스페인어 중 최소한 하나를 구사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입학할 허가해주고 있으나, 일단 입학하면 교실 내에서는 영어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는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입학금이 약 1,000~1,500 불, 등록금이 학기당 약 500~1,000 불, 수업료가 월 500~800 불 정도이며, 이 외에 통학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월 90~120 불이 추가로 소요된다.

마. 한국식품조달여건

한국 교민 수는 약 500 명 내외로 작은 규모이지만, 4 개의 한국식당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이 있어, 이 곳에서 라면 등의 한국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한국식품 조달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한국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한국식당과 중국 식품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리틀서울 식당 : (506) 232-5551
- 베니하나 식당 : (506) 296-0041
- 모비딕 식당: (506) 224-7613
- 중국식품점 ASIA : (506) 236-3103

현지에서 입수하는 한국식품 재료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 것을 다시 들여온 것이라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중국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유효기간을 지운 후 판매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교포들은 인편이나 수입화물에 끼워서 라면, 고추장, 된장, 고추가루, 김, 미역, 젓갈류 등의 식품을 가져오기도 한다.

바. 전화

전화 보급율은 약 90% 이상으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전화비용도 저렴하고 전화 신청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전화신청은 115 번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전화국 및 담당 설치자 안내를 해주며, 전화 신청 비용은 가정용 U\$18.00, 기업용 U\$40.00 이다. 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로 가정용, 회사용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소유회사가 없을 경우 가정용 전화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에게만 있으므로 여권만으로는 전화 신청이 불가하다. 하지만 거주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자 이름으로 신청된 전화선이 기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화 이용에 큰 문제는 없다.

휴대폰의 경우, ICE(전력통신공사)가 유일한 사업자이며, 선불제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후불제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며, 단기체류자는 구입이 어렵다. 회선개통비용은 U\$25 불이며, TDMA방식은 바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GSM방식의 경우, 현재 회선이 고갈되어, 2008 년 3 월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을 렌트하는 경우에는 400 불 내지 500 불의 예치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반납할 때 1 일 대여료 6 불에 분당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Alja Celular(506-219-0136), Rent-A-Phone Solutions(506-392-1205) 등이 있고, 공항에서 임대 가능하다.

사. 은행구좌

은행구좌 개설에는 각 은행 별로 계좌 개설 요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권만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단 은행 계좌개설 시 각 은행 공통으로 거주지의 수도세 및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제출이 요구되므로, 거주지를 임대했을 경우 임대자에게 이전에 지불된 영수증 및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 생필품 구입 용이성

생필품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물자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공산품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며, 과일, 육류, 채소류 등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미국계 Price Smart, Auto mercado, Hipermas, Mas x menos 등 대형 유통체인망이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과 현지 중산층 이상 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현지 중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주말시장 등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선한 야채, 과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자. 의료보험, 병원, 약국

일반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대부분이 CCSS 라는 사회보장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 진료비가 거의 무료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보험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 시설이나 의료기술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없이 고급 민간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고급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으로, 대표적인 민간 종합병원으로는 CIMA, Clinia Catolica, Clinica Biblica 등이 있다. 하지만 민간 종합병원들은 CCSS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진료비 또한 매우 비싸, 일반 진찰의 경우 1 회에 U\$50 불 이상을 청구하며, 이외에 x-ray 등 기기검사료와 약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CCSS 의료보험이 아닌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민간 종합병원에서 지출한 전체 비용의 80%를 영수증 제출 후 보험료로 수령할 수 있으며, 4 인 가족 기준 사설 의료보험 비용은 일년에 1.800 불 정도이다.

감기약 등 일반 약품은 약국(Farmacia)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전문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약국은 시내 곳곳에 있고 일부는 24 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다.

차. 레저여건

산호세 시내에서는 클럽형태로 골프, 수영, 테니스,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레저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클럽 이 외의 시내에서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다.

코스타리카 주요 관광지로는 산호세 인근의 뽀아스(Poas), 이라수(Irazu) 화산 분화구가 있고 커피농장을 견학하는 관광 패키지도 있다. 산호세에서 북쪽으로 4 시간 거리에 있는 아레날(Arenal) 활화산과 따바콘(Tabacon) 노천온천은 대표적인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한편 미국, 유럽인들은 코스타리카 북부 태평양 연안의 해안지역을 많이 찾고 있으며, 스페인의 Melia, 미국의 Four Season 과 같은 호텔체인에서 리조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미국인들의 별장 개발 붐이 일고 있어 바닷가를 끼고 고급 주택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골프장은 산호세 시내 및 인근에 정규코스 2 개, 9 홀 코스가 2 개 있으며, PRIVATE CLUB은 회원 초청을 받아야 입장이 허용된다. Public 코스는 Valle del Sol 클럽이 있으며 라운딩 비용은 그린피 35 불, 캐디피 15 불, 클럽 임차료 35 불, 그리고 전동카트를 이용료는 20 불(선택사항)이다.

카. 치안상태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는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절도, 강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연말에는 치안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도심지를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에서도 강도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세일즈 출장자의 경우 시내(특히, 구시가지)에서 노상강도에게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내택시에는 빨간색 차체에 노란색 표시등을 부착한 일반 택시 이외에 택시면허 없이 운행하는 사이비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간혹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정식 택시, 그리고 전화를 통해 호출한 택시(요금은 일반택시와 동일)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코스타리카는 지리적으로 북위 10도선에 걸친,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어, 연중 기후변화가 크지 않으며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큰 기후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맥의 영향으로 국토 중앙부분은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고도에 따라 큰 기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해안에서 고도 500~600m의 지역은 평균기온 30℃의 열대 및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국토의 약2/3를 차지하고 있다. 고도 500m~1500m까지 대부분의 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평균기온 23~28℃의 온대성 기후, 그리고 1500m~2000m까지는 연평균 14~18℃의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발 2000m이상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큰 산악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3000m이상 봉우리에는 밤에 기온이 빙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코스타리카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뉘어 특징적인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 건기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반면, 5월에서 11월까지 우기에는, 오전에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으나 오후에 구름이 형성되면서 오후에서 밤사이 거의 매일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스타리카 우기는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지만, 연교차가 크지 않은 기후에서 비로 인해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코스타리카에서는 우기를 겨울(Invierno)이라 부르고 있다. 우기 중에서도 9월과 10월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다.

한편 카리브 연안지역은 9월과 2월 부근을 제외하고 연중 강우량이 많아 강, 저수지, 운하 등이 발달한 열대 우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백사장을 가진 해변도 드물어,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반면 태평양지역은 열대성 기후에도 건조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 다수의 호텔, 위락시설 등 관광시설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 개발되어 있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한국과 15 시간 시차가 있으며, 한국이 15 시간 빠르다. 간단한 시간 계산방법은 한국 시간에서 3 시간을 빼고 밤낮을 뒤집는 것으로, 즉 서울시간 저녁 9 시이면 코스타리카는 새벽 6 시, 그리고 서울시간 아침 9 시면 코스타리카는 전날 저녁 6 시가 된다. '90년대 초반에 잠시 썬머타임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썬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 멕시코시티, 시카고 등의 도시와 동일 시간대에 속해 있고, 콜롬비아, 페루보다는 한 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보다는 3 시간 늦다.

2) 근무시간

코스타리카의 근무시간은 부문별, 기관별, 업종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주 5 일 근무제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점심시간의 경우도 12시부터 1시까지가 일반적이지만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직장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주요 기관별 근무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공서 사무실: 08:00~16:00
- 공기업: 08:00~17:00
- 은행: 09:00~17:00 (일부 은행은 토요일 오전도 영업)
- 정부투자은행: 09:00~15:00
- 상점: 10:00~21:00(주말은 09:00~18:00)
- 공장: 교대근무 등 탄력적 운영

다. 주요단위

1) 도량형

코스타리카는 공식적으로 미터법을 채용하고 있으나, 실 생활에서는 다양한 전통적인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다. 길이와 면적에 있어서는 전통 도량형인 바라(1 Vara = 0.84m)와 만사나(10,000 제곱vara = 0.7ha)를 주로 사용하며, 옷감등의 길이를 잴때는 미국의 야드와 동일한 야르다(1 Yarda = 0.91m) 그리고 높이는 피트와 동일한 빼에 (30.48cm) 와 인치와 동일한 뿔가다 (2.54cm)를 사용한다. 액체의 부피에 있어서 비교적 부피가 큰 용기에는 미국의 갤런과 동일한 갈론 (1 galon = 3.785 liter), 메디오 갈론 (1/2갈론) 을 사용하고 부피가 적은 용기에는 리터와 동일한 리뜨로 (Litro)를 사용한다. 무게에 있어 도량형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KG를 사용하고 있다.

온도에 있어서는 화씨와 섭씨를 모두 사용한다.

2) 전기 규격

전기는 한국과 동일하게 60Hz의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나, 가정용 기기의 전원은 120V로 한국에서 구입한 220V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변압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산업용으로 120V, 240V, 440V를 사용하나, 전압이 불안정함으로 전압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출입국/비자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비자면제협정('81.10.22.)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관광객은 90일간 비자가 면제된다. 체류연장을 희망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더 연장하고 싶으면 보통 일단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연장방법이다.

장기비자에는 취업비자와 학생비자가 있는데 취업비자는 체류기간이 1년이며 추가 1년씩 연장된다. 이외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등 가족중의 한명이 코스타리카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분야에 5~20만 불을 투자한 경우, 그리고 월 특정액 이상의 연금 수령자에게 장단기 영주권이 부여된다.

1) 비자 발급처

□ 국내: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

-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0-1 일진빌딩 8 층
- 전화: (02) 707-9248/49
- 팩스: (02) 707-9255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내무부 이민국

- 주소: 600 MTS OESTE DE LACSA, LA URUCA, SAN JOSE
- 전화: (506) 220-0355/231-2924
- 팩스: (506) 231-7553
- 소요시간: 1 일, 비용 : US\$ 20

2) 구비서류

- 장기비자(취업비자): 고용계약서, 비자신청서, 전과조회서
- 단기비자(상용/관광): 여권 사본, 비자신청서
- 학생비자는 장기비자에 준함

3) 방역

- 황열병 발생국으로부터 코스타리카로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의무화
 - 적용시기: 2007년 11월29일부터
 - 대상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아, 리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레온, 수단), 남미(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카리브(프랑스령 기아나)

4) 출입국 유의사항

- 관세법상 US\$25 초과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며, 고가 장비라도 노트북 등은 1 대까지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벗어나는 물품에 대해 500 불까지는 실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여권에 스탬프를 찍는 경고만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경고를 받은 사람이 이후 6 개월 안에 다시 개인물품 이외 물품을 들여올 경우에는 소액의 경우라도 관세가 부과됨.
- 출국시에는 공항세 26 불(현지인은 43 불)을 납부해야 하며 코스타리카공항 면세구역 내에는 환전소가 없으므로 현지화인 콜론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티켓팅을 한 후 면세구역으로 들어가지 말고 청사 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한다. 공항 내부 면세점은 소규모로서 코스타리카 특산품인 커피술이나 목각품 이외에는 구매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

마. 환율/환전

코스타리카의 화폐단위는 콜론(Colon)으로 현재 5, 10, 20, 25, 50, 100, 500 콜론 짜리 동전과 500, 1,000, 2,000, 5,000, 10,000 콜론 짜리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로서 미국 달러화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고, 호텔, 국립공원, 패키지 관광비용 등은 아예 가격이 달러화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달러화로 지불해도 되고 당일 환율로 환산한 콜론화로 지불해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외국관광객이 호텔에 투숙할 경우 신용카드 슬립에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신용카드 미지참시 선불요구) 출장 시 신용카드를 지참할 것이 권고된다.

환전업무는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그러나 대부분 상점에서 달러와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출국시 재 환전하면 또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소액만 조금씩 환전하는 것이 좋다.

현재 코스타리카 정부의 환율정책은 관리변동환율제로서, 연간 기준으로 국내외 인플레이 차이만큼 콜론화가 평가절하되도록, 매일 조금씩 환율을 조정하는 Mini-Devalu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연간 평가절하 목표는 10% 내외로서 매일 15~20 센트 콜론씩 평가절하되고 있다. 최신의 업데이트된 환율정보는 은행 홈페이지(www.bCCR.fi.c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 교통 / 통신

1) 항공

코스타리카는 한국과의 직항이 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로 L.A를 경유하여 코스타리카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미국의 테러위험 때문에 미국비자 없는 사람은 미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미국비자가 없을 경우 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를 경유한 후 다시 멕시코를 경유해서 입국해야 한다. 일반적인 캐나다 경유 노선은 KAL을 이용하여 “인천-밴쿠버-멕시코시티-코스타리카” 또는 JAL을 이용하여 “인천-동경-밴쿠버-멕시코시티-코스타리카”이다. 참고로 캐나다 경유 노선일 경우 미국 경유보다 요금이 다소 비싸다.

코스타리카 취항 항공편으로는 중미 항공사로 TACA(중미연합 항공사), COPA(파나마) MEXICANA(멕시코) 등과 북미의 AMERICAN AIRLINE(AA), UNITED AIRLINE(UA), CONTINENTAL AIRLINE(CA), DELTA AIRLINE(DL), AIR CANADA(캐나다) 등이 있고, 기타 편수는 유럽 항공사인 IBERIA(스페인), KLM(네델란드), AIR FRANCE(프랑스) 등이 있다.

코스타리카까지의 여행 시간은 서울-L.A구간이 약 11시간, L.A-과테말라-코스타리카 구간이 약 7시간 정도 소요되며, 캐나다 경유 시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1박을 해야 한다.

2) 택시

코스타리카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한 관계로 여행자의 교통수단으로 택시이용이 가장 적합하다. 코스타리카 택시는 빨간색으로 차체 상부에 TAXI 표시를 부착하고 다니며, 측면에 차량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도로에서는 택시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들이 불법영업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며, 택시강도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택시를 세우는 것 보다 전화호출의 경우 호출과정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화로 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시는 미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은 초기 1Km까지 285콜론, 그 후 매 1Km마다 160콜론씩 추가되며, 1시간 경과에 1,200콜론씩 시간도 함께 계산된다.

공항에는 빨간색 이외의 공항택시가 별도로 있으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티켓 구매 창구에서 요금지불과 티켓구매를 한 뒤, 안내를 받아 택시를 탑승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목적지 위치에 따라 보통 15~20불사이의 요금이 부과된다. 공항택시는 공항에서 목적지뿐 아니라, 호텔 등에서 공항으로 갈 때도 똑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며, 짐이 많은 승객의 경우, 승합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 공항택시 호출 전화번호: (506)222-6865

코스타리카에는 번지수 등 주소가 이용되지 않고 주소 표기방법은 부근의 특징적인 건물을 지정하고 그 건물로부터 동(서)쪽으로 몇 미터, 남(북)쪽으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한국인에게는 생소하지만, 현지에서 이용되는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줄 경우,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3) 전화

전화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도심지 어느 곳에서도 쉽게 공중전화를 만날 수 있다. 동전전화와 카드전화가 있으나, 동전전화기는 설치수도 부족하고 사용하기 불편함으로 카드전화 이용이 바람직하며, 전화카드는 보통 1,000콜론~3,000콜론 짜리가 있다. 코스타리카는 소국가로 각 지역별 지역번호는 따로 없어 시외전화 개념이 없고, 전국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전화요금이 부여된다. 또한 전화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이므로, 코스타리카 국내 전화나, 한국으로 국제 전화 시에도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전화카드는 번호기입식으로 공중전화뿐만 아니라, 호텔전화 및 일반전화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가급적 카드사용을 숙지하여 항상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호텔에서 전화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전화로 한국에 국제전화를 할 경우에는 분당 U\$3.50으로 요금이 비싼 편인 반면에, 전화카드 이용 시 단 3,000콜론 (U\$6.40)으로 10분 연속 통화가 가능하다.(분당 650원 상당).

○ 전화 카드 이용 방법

- 197번카드와 199번 카드가 있으나 199번 카드만 영어안내를 지원하므로 199번 카드를 구입
- 국내 전화 시: 수화기를 들고 199 누름 - 2번 (영어안내)-카드번호 누름 - 원하는 전화번호 누름(한국의 경우 0082 - 0을 제외한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전화연결

○ 일반전화 사용 시

- 00 + 82(한국 국가번호) + 0을 제외한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수신자 부담 전화

- 00800-1234-8000으로 전화하면 한국 통신과 연결되며, KT 카드, 월드폰 카드, VISA 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할 수 있으며, 수신자 부담 전화도 할 수 있다. 요금은 분당 1500원임.

사. 호텔 / 식당

1) 호텔

가) 수도 산호세

- 5성급(★★★★★)

호텔명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Hotel San Jose Palacio	(506)220-2034/ 220-2211	(506)220-2036	US\$ 143	254개 (룸서비스제공)
	www.barcelo.com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4성급(★★★★)

호텔명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Hotel Corobici	(506)232-8122/ 232-0618	(506)231-5834	US\$ 120	203개
	www.tryp.corobiciolmelia.com			
Hotel Palma Real	(506)290-5060/ 290-4160	(506)220-3409	US\$ 89	65개
	www.hotelpalmareal.com			
Hotel Raurola Holiday Inn	(506)222-2424/ 255-1171	(506)222-2621	US\$ 125	200개
Hotel Gran de Oro	(506)255-3322	(506)221-2782	US\$ 105	35개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3성급(★★★)

호텔명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Hotel Best Western Irazu	(506)232-4811/ 220-1441	(506)232-4549	US\$ 82	327개
	www.superpagescr.com			
Gran Hotel	(506)221-4000	(506)221-3501	US\$ 71	105개

Costa Rica			granhcr@racsa.co.cr	
Hotel Balmoral	(506)222-5022/ 221-1266	(506)221-7826	US\$ 80	116개
			eventos@balmoral.co.cr	
Hotel Best Western San Jose	(506)255-4766	(506)255-4613	US\$ 54	70개
			garden@racsa.co.cr	
Hotel Del Rey	(506)257-7800/ 221-7272	(506)221-0096	US\$ 72	104개
			info@hoteldelrey.com	
Hotel Presidente	(506)222-3022	(506)221-1205	US\$ 70	100개
			info@hotel-presidente.com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2성급(★★)

호텔명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Hotel Diplomat	(506)21-8133/ 221-8744	(506)233-7474	US\$ 30	29개
Hotel Fleur de LYZ	(506)223-1206/ 257-2621	(506)257-3637	US\$ 75	19개
			florlys@racsa.co.cr	
Hotel La Mención Blanca	(506)257-5674/ 257-6198	(506)222-7947	US\$ 45	11개
			mansion@racsa.co.cr	
Hotel Vesubio	(506)256-1616/ 221-8325	(506)256-1616	US\$ 50	20개
			info@hotelvesubio.com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1성급(★)

호텔명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Hotel San Jose	(506)256-2191	(506)221-6684	US\$ 40	22개
			hsanjose@racsa.co.cr	
Gran Hotel Centroamericano	(506)221- 3362/ 221- 3955	(506)221-3714	US\$ 23	45개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나) 산호세 APARTOTEL(콘도; 조식제공, 취사가능, 일반적으로 호텔보다 가격 저렴)

호텔명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E-mail	
Apartotel Cristina	(506)231-1618/ 220-0453	(506)220-2069	US\$ 55	50개
			aparcrit@amnet.co.cr	
Apartotel La Sabana	(506)220-2422/ 296-0876	(506)231-7386	US\$ 69	32개
			lasabana@racsa.co.cr	
Apartotel La Perla	(506)232-2185	(506)220-4195	US\$ 40	14개
			mcalva@racsa.co.cr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다) 기타 지역 호텔

- 5성급(★★★★★)

호텔명(위치)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E-mail	
Intercontinental Hotel Real Costa Rica (Escazu-수도에서 10km)	(506)289-7000	(506)289-8930	US\$ 245	260개
	www.intercontinental.com		sanjose@interconti.com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4성급(★★★★)

호텔명(위치)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E-mail	
Hotel Tara Resort (Escazu)	(506)228-6992	(506)289-8843	US\$ 130	14개
			taraspa@racsa.co.cr	
Hotel Americano del Este (Boutique Jade) (San Pedro-수도에서 10km)	(506)224-2455	(506)224-2166	US\$ 97	29개
	www.hotelboutiquejade.com		amehotel@racsa.co.cr	
Hotel Milvia (San Pedro)	(506)225-4543	(506)225-7804	US\$ 65	9개
			hmilvia@racsa.co.cr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 3성급(★★★)

호텔명(위치)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E-mail	
Hotel San Gildar (Escazu)	(506)289-8843	(506)228-6454	US\$ 98	27개
			info@hotelsangildar.com	

Hotel Ave del Paraiso (San Pedro)	(506)225-8151/ 253-5138	(506)283-6017	US\$ 45	28개
		paraiso@racsa.co.cr		
Hotel Don Fadrique (San Pedro)	(506)225-8186/ 224-7583	(506)224-9746	US\$ 65	20개
		fadrique@intercentro.net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2성급(★★)

호텔명(위치)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E-mail	
Hotel Mirador Pico Blanco (Escazu)	(506)289-6197/ 228-1908	(506)289-5189	US\$ 55	20개
		pblanco@costarica.net		
Hotel D'Galah (San Pedro)	(506)234-1743	(506)280-8092	US\$ 47	21개
		dgalah@racsa.co.cr		
Hotel Alb.Juvenil Toruma (San Pedro)	(506)234-8186/ 224-4085	(506)224-4085	US\$ 13	19개
		recalhi@racsa.co.cr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라) 기타지역 APARTOTEL(콘도; 조식제공, 취사가능, 일반적으로 호텔보다 가격 저렴)

호텔명(위치)	전화	팩스	가격	객실수
	홈페이지		E-mail	
Apartotel Villas del Rio (Escazu)	(506)289-8833/ 289-8836	(506)289-8835	US\$ 125	64개
		apvrio@racsa.co.cr		
Apartotel Maria Alexandra	(506)228-1507/ 228-9072	(506)289-5192	US\$ 90	14개
		apartotel@mariaalexandra.com		
Apartotel Los Yoses	(506)225-0033/ 225-0044	(506)225-5595	US\$ 57	23개
		losyoses@racsa.co.cr		

* 가격: 세금 16.39%, 봉사료 별도

2) 식당

코스타리카는 관광국가로서 수도 산호세시와 관광지로 개발된 지방도시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음식 맛은 한국사람 입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도 산호세에는 다른 국제도시와 마찬가지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관광지로 개발된 해안지역에서는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현지인에게 코스타리카 전통음식을 물어보면 가요뵘또(Gallo Pinto : 밥에 삶은 팥을 섞은 것)라는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요뵘또는 일부 현지 식당에서 아침 메뉴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메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현지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점심메뉴로 까사도(Casado)라는 한국의 정식 개념의 음식이 있다. Casado는 '결혼했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접시 위에 고기(혹은 생선) 한조각, 감자(혹은 밥, 바나나 등), 샐러드 등을 함께 올려 놓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들고 오거나, Casado를 사먹는데 Casado 가격은 1,500콜론 (3,000원) 내외다

□ 현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식당은 아래와 같다.

- 리틀서울 : (506) 232-5551
- 베니하나 : (506) 296-0041
- 모비딕 : (506) 224-7613

아. 관공서 관행

1) 공공기관 근무시간

08:00~16:00(월~금)으로 일 8시간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나 관행적으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12:00~14:00에는 되도록 관공서 방문을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일과 중에도 관행화 된 티타임(Tea Time)으로 업무가 잠시 중단되는 등 비능률적이고 나태한 행정에 현지인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한편, 특근 및 야근에 대한 공무원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나 정시퇴근이 일반적이다.

2) 공휴일 및 휴가에 대한 규정

다음과 같다. 모든 관공서는 토·일요일, 국경일 등 11개의 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에 휴무한다. 또한 휴가규정에 의하면 근속년수 1~5년의 경우 15일, 6~10년은 20일, 15년 이상은 26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담당직원이 휴가중일 경우 업무가 중단되거나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므로, 휴가철인 부활절 전후, 그리고 성탄절 전후에는 관공서 업무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편하다.

3) 민원처리 기간

간단한 민원서류의 경우 일주일 내외에서 복잡한 서류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0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유학서류는 학위 인증에 3~4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민원접수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가는 것이 좋다. 대리인 및 대행업자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경우는 위임에 대한 변호사 공증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예상 밖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가급적 본인이나 담당직원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다.

4)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칙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므로 억지를 쓰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특히 공무원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들과의 차이를 두지는 않으나, 아직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외국어구사 인력이 미흡함을 감안, 방문시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현지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담당관리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간단한 선물을 통해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충고하며, 특히 세관은 다른 부처에 비해 부정이 심한 곳으로 손꼽았다. 또한, 당사자가 아무리 급해도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돌려 보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수 전에 구비서류와 민원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공휴일

2007년 코스타리카 공휴일 현황

일자	2007년	공휴일명(서어)	공휴일명(번역)
1월 1일		Año Nuevo	설날
4월 5~6일		Semana Santa	부활절 기간
4월 11일	4.16	Día de Juan Santamaria	Rivas전투 승전일
5월 1일		Día Internacional del Trabajo	노동절
7월 25일	7.30	Anexión del Partido de Nicoya	과나까스테 합병일
8월 2일		Día de Virgen de Los Angeles	성 처녀 기념일
8월 15일	8.20	Día de la Madre	어머니 날
9월 15일		Fiesta Nacional	독립기념일
10월 12일	10.15	Día de Encuentro de Culturas	신대륙 발견일
12월 25일		Navidad	성탄절

주1) 2005년4월 11일, 7월 25일, 8월 15일, 10월 12일은 실제 날짜에 휴무하지 않고, 공휴일 다음주 월요일에 휴무함.

□ 참고사항

4월 부활절 전후, 그리고 12월 하순에서 이듬해 2월 초순까지는 휴가철로서 상담주선이 어려우므로, 출장계획 수립시 참고요망.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의복준비

코스타리카는 지리적으로 북위 10 도선에 걸친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수도인 산호세는 해발 1,150m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연중 23~28℃의 상춘기후와 일교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넥타이에 정장을 할 경우 한국의 하복에 해당하는 가벼운 옷차림이 적당하고, 간소복의 경우 주간과 야간용으로 반팔, 긴팔 티셔츠를 각각 준비하는게 좋으며, 비상용으로 긴팔 잠바 등을 하나 정도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

2) 전기규격

110V, 60Hz가 표준 전기규격이다. 출장시 전기전자 제품을 휴대할 경우, 전기규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치안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들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강도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카리브 연안 항구도시인 Limon과 파나마 국경에 이르는 해안지역에서 마약밀매, 살인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이 지역으로의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산호세 중심지에서 주간활동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최근 지갑, 목걸이 등을 노린 전문 소매치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너 명이 한 조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시내관광 및 쇼핑시 목걸이 등 귀중품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야간에 혼자서 도보로 산책하는 것은 금물이다.

4) 건강

산호세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수돗물은 음료수로 적합하며, 현지인들은 대부분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나 여행중 건강을 위해 가급적 병에 든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산호세(1,150m)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POAS 화산(2,709m), IRAZU 화산(3,432m) 관광시 호흡장애, 두통 등 고산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고산증세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관광 중 고산증세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저지대로 내려가는 게 상책이다.

5) 응급

응급상황에서 아무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에서 “911”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11 교환은 상황에 따라 경찰, 소방서, 앰블런스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6) 팁관행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는 13%의 판매세와 10%의 서비스요금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식당에서 5% 정도의 팁을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불하기도 한다. 기타 팁 관행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불하면 된다. 즉, 공항이나 호텔에서 포터 도움을 받을 경우 트렁크 하나당 1 불, 그리고 호텔 방을 나설 때 침대에 1 불 정도 팁을 두면 된다.

7) 쇼핑

코스타리카 특산품으로는 원두커피, 목공예품, 가죽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원두커피는 최근 스타벅스 등을 통해 한국에서는 조금 알려진 편이나, 국제시장에서 최고급 커피로 거래되고 있으며, 커피 애호가를 중심으로 선호되는 상품이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생산된 다양한 고급목재로 만들어진 과일그릇, 접시 등 목공예품은 주방용품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다.

특산품 쇼핑장소로 고급 호텔에도 특산품 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며, 아래 매장을 이용할 경우 보다 다양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 **La Campesina**
 - Cariari 호텔 전방 50m
- **Atmosfera**
 - 시내 Aurora 호텔 부근
- **Moravia 특산품점**
 - 산호세 시내에서 15 분 거리의 Moravia 지역에 10 여개 특산품점이 있음.

카. 유용한 연락처

1) 주한 코스타리카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Costa Rica

- 공관장
 - 공관장명: Ambassador Pedro Goyenaga Hernández
 - 신임장제정일: 2003.02.12
 - 부임일: 2003.02.06
- 대사관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0-1 일진빌딩 8 층
 - 전 화: 02)707-9248/49
 - F a x: 02)707-9255
 - E-mail: embajadaCR@ecostarica.or.kr
 - 홈페이지: <http://www.ecostarica.or.kr>
 - 근무시간: 09:30~12:00 & 14:00~17:00(월~금)
 - 국경일: 9 월 15 일(독립기념일)

2) 한국대사관

- 주소 : Carretera a Pavas, del Rest.Los Antojitos 75m Norte, Rohrmoser, San Jose
- 전화 : (506)220-3160, 3166, 3141
- 팩스 : (506)220-3168
- 근무직원 : 대사 조병립, 서기관 김두식, 영사 박종유, 상무관 김지엽, 전문위원 최승원, 행정원 정효선

3) 한인회

- 회장 : 서정근 (전화 : 506-890-4002)
- 부회장 : 김정원 (전화 : 506-399-4942)
- 홈페이지 : www.costarica.or.kr

4) 한인교회

- 코스타리카 한인교회 : (506) 240-8585, 8620
- 시온교회 : (506) 236-9963, 235-9959

5) 비상연락처

- 응급구조: 911
- 경 찰: 117
- 앰블런스: 128
- 소 방 서: 118
- 전화안내: 113
- 전기고장: 126
- 교통경찰: 222-9330, 222-9245
- 국제전화 콜렉트콜 신청 : 116, 175

타. 관광명소

코스타리카는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이 많지 않으나, 국토의 25%가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을 만큼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Eco Tourism (생태관광)이 매우 발달한 국가이다.

특히 아직도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화산이 많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깊숙한 정글에는 수많은 조류와 원숭이, 이구아나,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어, 전세계 생물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동쪽으로는 카리브 해안을 끼고 있어 전국에 걸쳐 아름다운 해변들이 즐비하며, 이에 따른 편의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 있어 관광을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이다.

1) 포아스 화산 (Volcan Poas)



산호세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휴화산으로(1시간 소요), 709m에 위치, 폭5km, 깊이 300m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구를 보유하고 있다. 높은 지형으로 인해 비가 자주 오고 구름이 덮여있어 분화구를 사진처럼 깨끗하게 보기는 쉽지 않으나, 건기인 12월에서 4월 사이 방문하면 살아있는 화산 분화구를 구경할 수 있다.

2) 아레날 화산 (Volcan Arenal)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으로 해발 1,633m에 위치하고, 화산 주변으로 아레날 국립공원을 조성하여, 화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진은 1993년 화산이 크게 폭발 하였을 때의 사진으로, 지금은 사진과 같은 폭발을 보기는 힘들지만, 낮에는 분화구에서 솟아 나오는 연기를, 밤에는 분화구에 어리는 붉은 용암을 볼 수 있다. 주변에는 아레날 호수(Lago de Arenal)가 있어 멋진 풍광을 자랑하며, 승마나 정글 캐노피 (줄타기), 윈드서핑 등을 즐길 수 있다.



화산 근처에는 용암으로 데워진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천혜의 자연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타바콘 호텔 (Hotel Tabacon)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는 자연을 잘 살린 온천 리조트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산호세에서 3-4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바콘 호텔 1일 숙박비는 평균 U\$180.00정도이다.

3) 과나카스테 지방 해변 (Guanacaste)



코스타리카 북서쪽 태평양연안인 과나카스테 지방은 해변이 매우 발달된 곳으로 미국 및 캐나다 관광객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이다. 유명 고급 호텔들이 많이 있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단위 “쉬는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보통 식사와 음료제공까지 포함된 호텔 패키지가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은 호텔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당 U\$60.00 ~ U\$150.00 /1일 의 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산호세에서 5~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만 목적인 경우에는 산호세를 경유하지 않고 과나카스테 지역의 리베리아 공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4)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 (Manuel Antobnio)



코스타리카 서남단에 위치한, 해변을 끼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과나카스테 지역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자연을 잘 보존하여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여행지이다. 국립공원 안에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해변과, 해변을 따라 울창하게 자리잡은 정글이 매우 인상적이며, 관광객들에게 먹을 것을 얻으려는 호기심 많은 원숭이와, 햇볕에 늘어져 있는 이구아나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산호세 시내에서 약 3-4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며, 국립 공원 입장료는 U\$7.00이다.

5) 몬떼베르데 (Monte Verde)



아레날 화산에서 가까운 국립공원으로 울창한 밀림에서 490여종의 진귀한 새들과 200여종의 양치류, 2500여종의 각종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객들 홀로 관광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으며, 안내원을 따라 하이킹을 하거나, 말을 타고 공원(?)을 샅샅이 둘러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관광을 계속하면서 여러 모양의 폭포 및 울창한 숲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코스타리카의 명물인 갓가지 색의 개구리 및 살아있는 뱀들을 구경할 수 있다. 몬떼베르데 공원 안에 위치한 커피 농장을 방문하여 커피 재배방법을 알아보고, 갓볶은 향긋한 커피를 시음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산호세 시내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U\$12.00이다.